김호민 〈캠핑희망도-인왕산〉
2016, 116×91cm, Color on Korean paper

성남미술은행SNAB은 성남문화재단이 미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아트 셰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입, 이를 다시 지역기업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한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가 기준 0.5~1.0%(월 기준)의 대여료로 일정 기간 소장 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대여 수입은 성남시 관내 문화복지기관 무상 대여 등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성남미술은행 | www.snab.or.k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06+07
9 772383 836002
ISSN 2383-8361

사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0. 06 & 07 Vol.151

Creative
Community
생활문화공간,
마을 속으로
주민 곁으로
Plat-for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함께하는

성남문화재단

MATINÉE BEETHOVEN

베토벤 250 배우 김석훈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5월 ~ 12월 (총 10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6.18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윌슨 응, 바이올린 김덕우

모차르트 - 교향곡 26번 E♭장조, K.184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Op.26
베토벤 - 교향곡 7번 A장조, Op.92

7.16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포르테피아노 이은지

J. S. 바흐 - 푸가의 기법
C. P. E.바흐 - 건반 협주곡 D단조, Wq23
베토벤 - 대푸가, Op.133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NEW 브랜드 콘서트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 W. A. Mozart

7. 11. SAT. 17:00

현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최고 걸작 희극 오페라
영화 쇼생크 탈출의 '편지의 이중창' 등
주옥같은 음악으로 수놓은 모차르트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 / G. Rossini

8. 8. SAT. 17:00

조아키노 로시니의 걸작
인류 역사 최대 희극 오페라
유쾌한 이야기와 찬란한 음악으로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

가면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 / G. Verdi

9. 12. SAT. 17:00

이탈리아 최고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걸작 비극 오페라
치정과 갈등,
부정한 사랑을 다룬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Roméo et Juliette / C. Gounod

12. 12. SAT. 17:00

지난 400년간 인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프랑스 낭만주의 최고 작곡가 구노의 걸작 오페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주최 성남문화재단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Sahar Coston-Hardy

©Sahar Coston-Hardy

공간은 강의 모습으로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By 그레이스 팜스

Grace Farms

우리가 '생산적'이라 부르는 일들은 대체로 세상의 가속 페달을 움직여 미래를 당기는 것과 관련 있다. 시간을 당기느라 우리는 네모난 20인치 모니터나 손안의 스마트기기에 시선을 저당 잡힌 채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레이스 팜스Grace Farms는 미국 코네티컷주 뉴 캐넌에 위치한 80에이커 규모의 녹지로, 뉴욕에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대도시의 번잡함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자연은, 시간을 당기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게 한다. 한때 주택 단지로 개발될 뻔한 이곳을 뜻있는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매입했고, 비영리재단[Grace Farms Foundation]을 설립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연·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꿨다.

그 정점은 리버 빌딩River Building. 강을 닮은 외관으로 풍경에 스민 커뮤니티 센터 건물은 일본의 건축가 그룹 SANAA에 의해 완성됐다. 완만한 구릉지 위로, 나무 지붕이 길고 굽이진 강을 그리듯 5개의 공간을 덮는다. 안과 밖은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뉜 듯 이어진다. 어디서든 아름다운 풍광이 내다보이는 덕에 스마트기기에 시선을 두기 아깝다.

눈을 감으면 살갗에 닿는 햇살과 바람이 느껴지고, 눈을 뜨면 계절이 그 자리에 있다. 체육관, 도서관, 라운지 어디서든 자연을 감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시간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꿈을 꾸고 숨을 쉬는 데도 비용이 드는 시대에, 신의 은총[grace]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글 **이아림** 객원기자
사진 제공 **그레이스 팜스** gracefarms.org

Contents

02
Viewfinder
그레이스 팜스
이아림

COVER STORY

08
깊이 보기
위례 업무2부지 임시 문화공간:
위례 스토리박스
남소연

14
현장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Place C
김문영

18
칼럼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미경

VIEW

24
미리보기
2020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
민재홍

©이두현

26
미리보기
2020 성남청년작가전 2
〈이두현: 흔적〉
민재홍

27
미리보기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양창섭

28
미리보기
연극만원
〈쉬어 매드니스〉
〈열여덟 어른〉
김주연

30
공연장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리뉴얼
남소연

ART CURATOR

36
칼럼
코로나19 이후 공연계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장지영

38
칼럼
코로나 시대,
공연계의 대처법
한정호

42
취향의 책장
시공간을 넘어 재탄생한
소설『위험한 관계』
이다혜

46
영화 속 클래식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김성현

48
문학과 책
출판계 새로운 돌풍
'각본집'
한소범

50
이슈&트렌드
트로트 열풍을
진단하다
유주현

©Rijksmuseum, Amsterdam

52
아트 시티를 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은화

INSIDE SEONGNAM

62
성남, 성남人
지승공예가 홍연화
김문영

66
독립예술영화관
〈살아남은 아이〉
정지혜

68
성남 속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
남소연

71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성남문화재단
소식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Vol.151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Vol.151
June & July 2020

격월간 아트뷰 2020년 06+07월호 **통권** 151호(비매품) 2020년 06월 0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은수미 **발행인** 노재천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미디어부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트뷰〉의 일부 기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원 파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최윤진 님의 목소리 기부와 편집으로 제작되는 음원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마을 속으로 주민 곁으로

08 깊이 보기
위례 업무2부지 임시 문화공간:
위례 스토리박스

14 현장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Place C

18 칼럼
지역밀착형 생활SOC

CREA

TIVE

COMMU

NITY

PLATFORM

위례 업무2부지 임시 문화공간 **위례 스토리박스**

시민의 예술, 도시의 문화가 되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일상 속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 동네마다, 마을마다 촘촘히 자리 잡은 문화 플랫폼 속에서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그 미래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이 생활문화예술 거점 시설과 공간 조성을 통한 '성남형 문화적 도시재생'에 나섰다*. 동네마다 격차 없는 문화공간 조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청년문화 일자리 확대와 온라인 성남 생활문화지도 플랫폼 구축까지, 성남의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단계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재단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임시 복합문화시설 '위례 스토리박스STORY BOX'를 완공하고 이곳을 완성할 주인공,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피어나고 '우리'의 예술이 '도시'의 문화로 피어나는 곳, '모두의 문화플랫폼' 스토리박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생활문화공간 전수조사를 실시, 성남시의 지역별 문화공간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현황(하드웨어)과 공간운영(소프트웨어), 공간이용자(휴먼웨어)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다. 오는 2021년까지 지역 내 200여 곳의 생활밀착형 공간(Place C)과 옛 영성여중 부지에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도심 거점 시설(위례·판교·태평동·여수동·구미동) 6곳에 대한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례 스토리박스는 거점 시설 6개소에 포함된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도로에 에워싸인 너른 부지, '위례업무2부지'로 지칭되던 텅 빈 공터에 선명한 원색의 컨테이너 구조물이 등장했다. 바로 개관을 앞둔 위례 스토리박스.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로 만나고,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이자 임시 복합문화공간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천대학교와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스토리박스 공간과 콘텐츠를 기획해왔다. 정식으로 대규모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업무2부지를 유휴공간으로 두는 대신, 성남 수정구와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임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스토리박스는 5개 동(A~E동) 지상 2층 규모, 총 55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한 가변형 구조다. 빨강·파랑·노랑·주황 등 다섯 가지 상징색으로 꾸며진 외관, 개성 넘치는 사이니지 디자인은 독특한 조형미가 가득하다. 덕분에 정식 개관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취재와 광고 촬영 요청까지 잇따르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다목적실·세미나실·댄스홀·스튜디오 등 창작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 커뮤니티 공간, 레스토랑·카페 등 휴게공간까지 구성도 알차다. 옥상 테라스, 탁 트인 계단식 구조의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 공간도 볼거리다.

현재 스토리박스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개관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라는 공간 특성상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선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입주공간을 시작으로 야외-대관-임대 공간을 차례로 공모·운영하고,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범위를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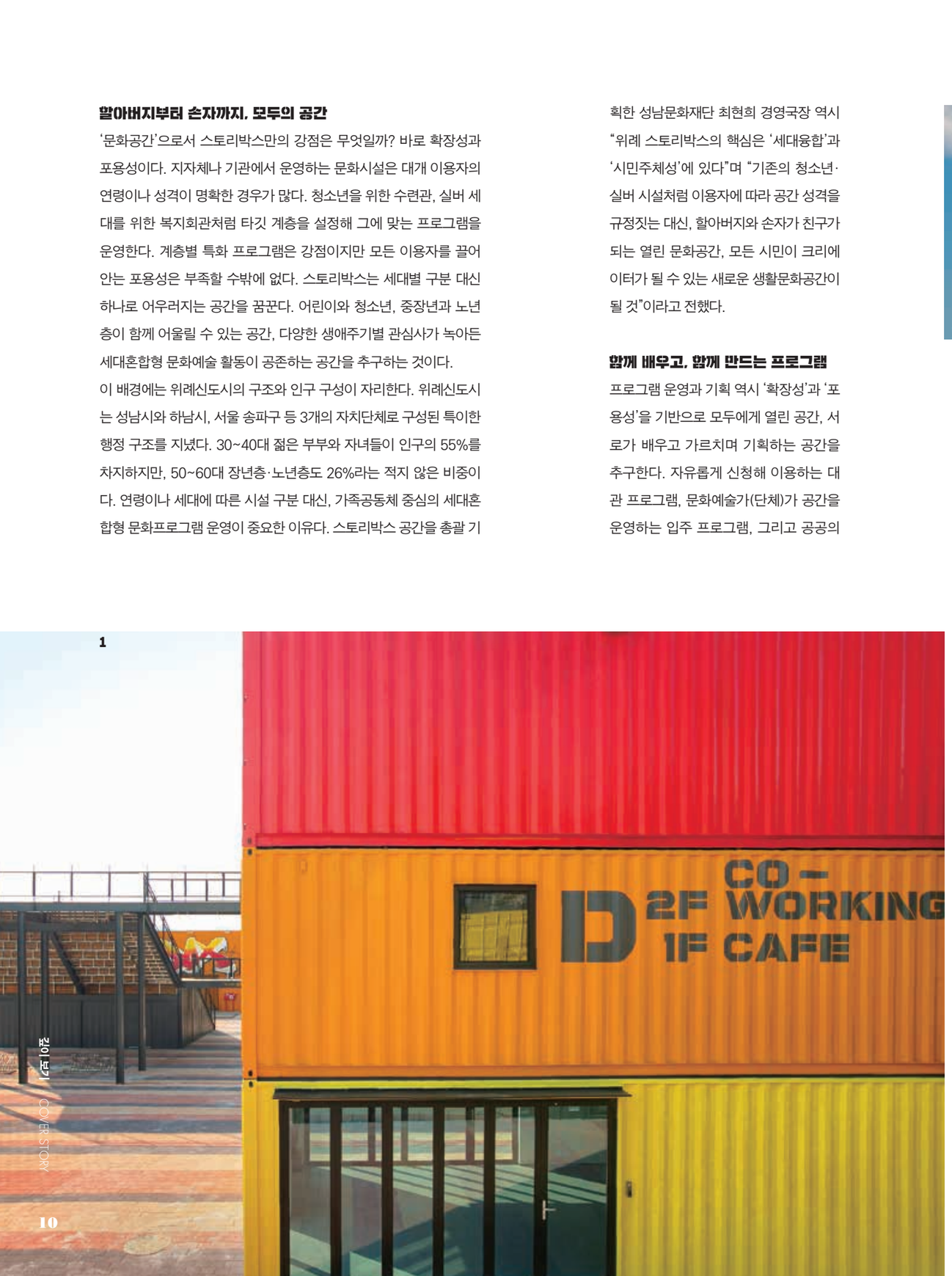
'문화공간'으로서 스토리박스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바로 확장성과 포용성이다. 지자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대개 이용자의 연령이나 성격이 명확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실버 세대를 위한 복지회관처럼 타깃 계층을 설정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은 강점이지만 모든 이용자를 끌어안는 포용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스토리박스는 세대별 구분 대신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꾼다.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과 노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생애주기별 관심사가 녹아든 세대혼합형 문화예술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위례신도시의 구조와 인구 구성이 자리한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특이한 행정 구조를 지녔다. 30~40대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인구의 55%를 차지하지만, 50~60대 장년층·노년층도 26%라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시설 구분 대신, 가족공동체 중심의 세대혼합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이유다. 스토리박스 공간을 총괄 기획한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국장 역시 "위례 스토리박스의 핵심은 '세대융합'과 '시민주체성'에 있다"며 "기존의 청소년·실버 시설처럼 이용자에 따라 공간 성격을 규정짓는 대신, 할아버지와 손자가 친구가 되는 열린 문화공간, 모든 시민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역시 '확장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며 기획하는 공간을 추구한다. 자유롭게 신청해 이용하는 대관 프로그램, 문화예술가(단체)가 공간을 운영하는 입주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의

1. 2. 3 스토리박스는 총 55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한 가변형 구조다. 빨강, 노랑 등 선명한 색상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 덕에 벌써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니어들이 서로의 경험과 특기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인생학교', 가족이 함께하는 합창단과 인형극 놀이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은 물론 이웃과의 유대까지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둘째, 세대별 생애주기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 등 세대별 특성과 니즈에 따른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공간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자생성과 기획력을 키우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오늘의 수강생이 내일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 은퇴 시니어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위한 지역 내 사회공헌 문화 조성 등 면면은 다양하다. 기존 시민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마을축제 기획자 양성 워크숍'과 '위례 생활문화 네트워크 축제' 등 시민이 예비 문화기획자로 역량을 다질 기회도 기다린다. 또 공간 내 카페와 레스토랑은 장애인단체나 이주여성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공성을 지닌 단체를 선정해 직업교육과 실습, 일자리 마련과 창업 기회까지 의미 있는 확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 모두가 '메이커'이자 '크리에이터'

스토리박스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다양한 소모임과 생활예술 활동·강좌 등 각자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3시간 단위로 대관이 가능하며, 주간 시간은 중장년층, 퇴근 후엔 직장인 등 세대를 아우르는 운영 시간 확보에 방점을 뒀다. 다만 주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예술가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메이커스 아틀리에Maker's Atelier〉는 지역예술가·문화예술단체가 시민과 협업해 문화예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입주 프로그램이다. 스토리박스 내 5개의 스튜디오에서 사진·목공·공

예·지역역사 등 일상생활과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공간, 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공유하는 이타적 지역공동체 창작 공간, 메이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DIT[Do It Together]' 공유 플랫폼 공간이기도 하다. 입주 예술가들은 1팀 1실·1년 단위로 입주하며, 스튜디오 공간뿐만 아니라 코워킹 스페이스와 3D프린터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포함한다. 대신 일정 시간 이상 공간 상주,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적 활동과 협력의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성남과 위례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인(단체) 5팀이 선정되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

문화시민이 문화도시를 만든다

스토리박스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그 자체로 공간을 대변하고 도시를 이야기한다.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 작은 참여가 모여 문화적인 장소성을 부여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입주공간인 '메이커스 아틀리에'의 목공실을 활용해 이웃들의 집과 가구, 공원의 벤치를 수리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위례 두꺼비 목수단〉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스토리박스가 지향하는 문화적 소통이자 가치의 구현이다. 탁 트인 계단식 좌석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은 봄 음악 축제, 한여름 밤 가족 영화제, 가을 버스킹 공연처럼 계절과 어우러진 콘텐츠를 선보여 주민들이 사랑하는 핫스팟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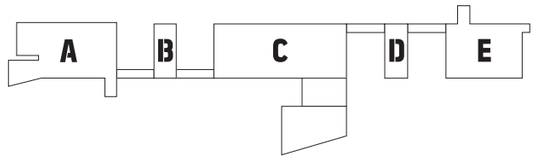
도시의 과거와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 역시 지나칠 수 없다. 스토리박스 초입에 자리한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 보호수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우리동네 역사·문화 이야기', 시민기자단 구성을 통한 위례 스토리박스 소식지 발간은 백제의 숨결이 스민 위례의 역사를 돌아보며 신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자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과 예술가의 협력 속에 진행, 이후 2024년까지 '위례 스토리박스 운영위원회'(가칭)를 꾸려 새로운 민간 주도형 문화공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이야기, 내일의 예술이 되다

현재 스토리박스는 공간 안팎에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스토리박스 주변 공간에는 상징수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벤치와 잔디 등 열린 공간과 동선을 조성하고 13종의 야생화 씨앗을 뿌려 계절별로 꽃피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렇듯 정성껏 준비된 공간 속으로 주민들이 다가올 때 비로소 스토리박스의 진정한 출발이 시작된다. 스토리박스를 중심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의 가치를 만드는 문화 크리에이터로, 또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손에서 문화도시 성남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또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공공의 문화허브이자 창의문화지구로, '모두의 문화플랫폼' 스토리박스와 시민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4, 5, 6 스토리박스 공간 내부. 주민자치실(4)과 다목적실(5), 댄스홀(6)
7 스토리박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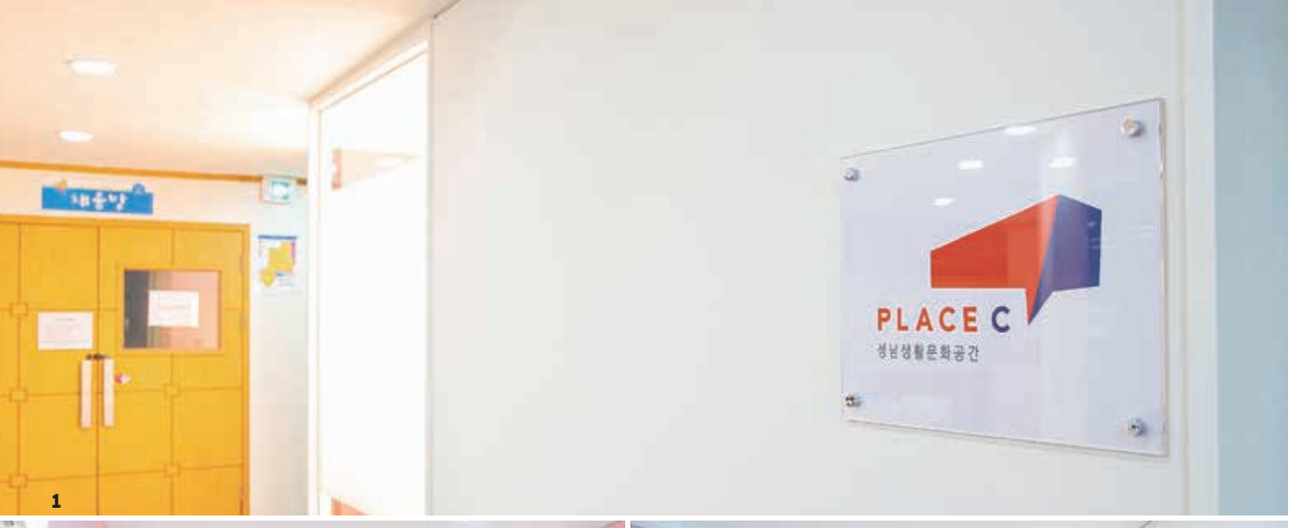
스토리박스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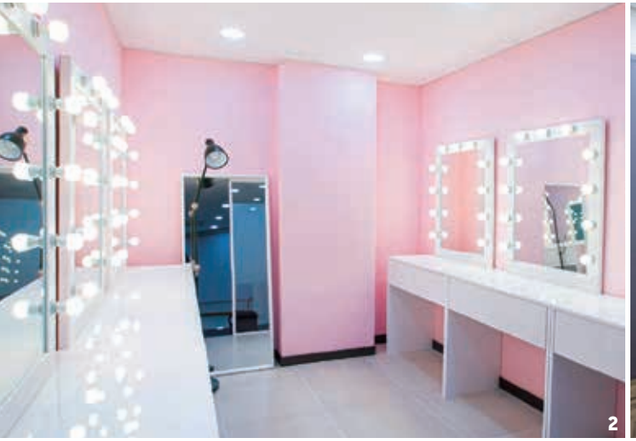
시설 개요

공간명		수용인원	면적(m²)	공간명		면적(m²)
A동	다목적실(대)	80명	178.20	D동	카페	59.40
	세미나실-1	12명	29.70		코워킹실	59.40
	다목적실(중)	24명	59.40	E동	관리사무실	35.64
B동	전시판매공간 & 안내데스크		35.64		휴게실	29.70
	스튜디오-5		59.40		레스토랑	103.95
C동	북카페 & 주민자치실		89.10	야외공연장		257.70
	댄스홀	20명	95.04	야외공연장 창고		29.70
	세미나실-2	12명	29.70	창고		57.05
	스튜디오1~2		59.40	기타 공용(화장실 등)		203.44
	스튜디오3~4		44.55	인라인스케이트장		74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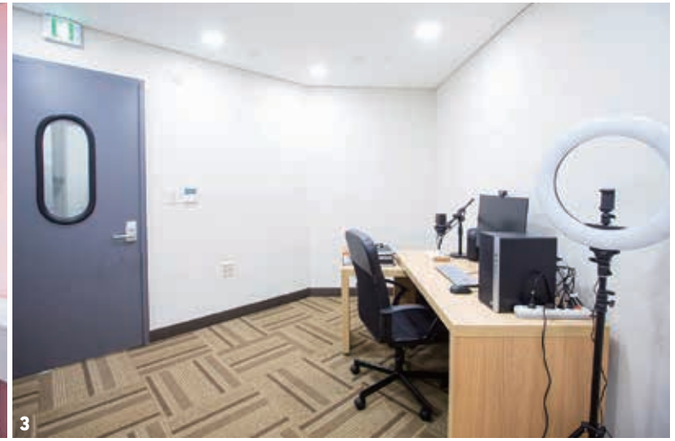
글 **남소연** 홍보미디어부 과장, **성남문화재단 미래전략부** | 사진 **최재우**



1



2



3

4

5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Place C**

일상 속에서 출발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도시 성남의 새로운 문화예술지도에는 도심 속 거점 시설과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이 점점이 이어져 있다. 위례 스토리박스가 큰 규모에 다양한 문화 시설을 갖춘 거점이라면, 주민 사는 곳 가장 가까이에 마련되는 공간은 누구나 자기 삶과 밀접한 주제로서 문화적 도시재생에 참여할 계기를 제공한다. 언제든 마음 끌리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찾아와 문화예술과 여가 활동을 즐기고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성남 수정구 양지동의 청소년문화의집과 중원구 중앙동복지회관은 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 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도 꼼꼼히 준비했다. 두 시설은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곳들이다. 지난 4월까지 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Place C'라는 브랜드로 예쁘게 꾸민 간판을 달았다.

양지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은 1999년 준공 이후 조금씩 낙후돼온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방음 장치를 완비한 밴드연습실을 설치하고 연습이나 공연 실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는 1인미디어실을 조성했다. 소셜 다이닝과 각종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유 카페, 뷰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메이크업룸도 만들었다. 중앙동복지회관은 낡은 건물 입구부터 화사하게 단장했다. 달라진 외관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전기 공사부터 도색까지 끝내고 한결 깔끔해진 복도가 기다리고 있다. 2층과 3층의 프로그램실은 각종 자료와 장비를 보관할 가구와 냉난방 시설을 완비했다. 이전에는 덥고 추운 계절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기가 힘들었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성남에서 문화공간이 가장 필요한 곳

성남에서 주민 모두에게 열린 생활문화공간이 가장 많은 곳과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성남의 문화공간은 삶의 질을 고민하는 주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운영되고 있을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마을 속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이 도보 혹은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 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조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경제적·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남의 문화공간을 재배치해 지역 간 격차를 없애고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성남 생활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의 취지이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느 사업과 출발부터 달랐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상반기에 성남시 문화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작은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지역별 불균형이 확연했고,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 부족 같은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남문화재단은 전수조사로 얻은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우선 재배치할 지역을 찾았다*. 교통, 인구, 문화 시설 밀집도 등을 수치로 산출해 분석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네트워

1. 2. 3. 4. 5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Place C) 조성사업에 참여한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기존 공간(5) 일부를 Place C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마쳤다. 낙후되었던 공간은 청소년들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게 화사한 메이크업룸과 유튜브 편집공간, 공유카페로 변신했다

크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문화시설 현황 및 입지를 정리한 데이터, 정책 방향,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종합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을 선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도 달라졌다. 중앙동복지회관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재개발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 어수선한 동네 환경을 고려해 공간 조성 방향을 정했다.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새 공간에 대한 제안을 접수했다. 주이용자인 청소년들의 흥미와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를 고려해 공간 구조와 용도를 바꿨다.

신규 공간의 담당자들은 새로운 공간에 어울리는 운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상영회를 포함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새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한상훈 청소년지도자는 "인근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자유로운 개인 활동도 장려하면서 지역 청소년이 모이는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중앙동복지회관의 김규식 팀장은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 들어오는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은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해서 Place C가 성남 전역으로 확대되기까지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6

6, 7 중앙동복지회관 1층 입구. 리모델링 전(6)
어두웠던 계단과 벽이 밝고 산뜻하게 단장을 마쳤다
8 중앙동복지회관의 북카페도 수납 가구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며 더욱 쾌적하게 리모델링 됐다
9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중앙동복지회관 입구에 걸린 'Place C' BI

휴먼웨어까지 아우르는 공간 전략

성남문화재단은 하드웨어(공간)·소프트웨어(운영)·휴먼웨어(이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공간은 조성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중앙동복지회관과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처럼 리모델링을 지원해 조성하는 신규 공간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들을 활용하는 개선형 공간이다. 개선형 공간은 운영 시간을 늘리고 커뮤니티와 공간을 공유하며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청년 퍼실리테이터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남문화재단은 2인 이상으로 조직된 청년 퍼실리테이터 그룹을 발굴, 육성해 공간마다 맞춤 매칭할 계획이다. 청년 퍼실리테이터는 시민을 공간으로 안내하고 시민의 활발한 소통을 도울 매개자이다. 이들은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서로 다른 공간 간의 교류와 거점 공간으로의 확장을 주도할 것이다. 또한 청년 퍼실리테이터 육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의 한 축이기도 하다.

이용 측면에서는 Place C라는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라인 성남생활문화지도 플랫폼으로 공간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브랜드는 시민 누구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을 인지하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온라인 성남생활문화지도 플랫폼은 각 공간의 위치, 운영 시간,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는 기능과 대관 접수·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등을 갖춘다. 향후에는 공간의 활동 내용, 사진, 영상 등을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도 포함된다. 이로써 공간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공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공간 운영에 참여할 기반이 된다. Place C는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로 연결되는 시민(Citizen)과 사회(Community)를 뜻한다.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은 2021년까지 200여 개의 공간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성남 문화예술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성남의 새로운 지도는 모든 시민을 문화예술과 함께 더 풍요로운 생활로 안내할 것이다.

9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의 특징은 공모가 아닌 DB 분석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적지 분석을 활용한 심의·선정 절차라 할 수 있다. 성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공간 45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252개 공간이 응답했다. 전수조사 설문 결과, 적지 분석(교통·인구·문화시설 밀집도 등)을 통한 점수 산출, 생활인구 빅 데이터 반영, 지역네트워크협의체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1~2차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최종 6개 후보군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두 곳(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중앙동복지회관)이 리모델링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Place

7

8

지역밀착형 생활SOC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생활 속SOC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요즘, 한국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세계적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개방과 투명, 민주에 기초한 국가의 재난대응체계에 뛰어난 의료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민관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 참여가 더해져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세계가 이를 평가하며 따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이전과 다른 국제적 위상과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의 상위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원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때문에 최근 우리 사회는 팽창적 개발 시대의 성장일변도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전환하고자 성장과 복지의 순환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향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중앙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넘어 지역분권과 자치에 기반을 둔 지역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역밀착형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책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개념과 탄생 배경

생활SOC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사회기반 시설로서 도서관,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미세먼지방지숲, 어린이집, 건강센터, 요양시설, 주거지주차장 등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대형 토목공사와는 차별적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 개념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SOC가 도로·철도·공항·항만·댐 등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기반 시설인 셈이다.

2018년 8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이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4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SOC 3개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것이며,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 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50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부처별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SOC 복합화도 적극 추진해,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개를 선정했다.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관련 생활SOC 사례들

대형 공간이나 시설 개발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용이 활성화된 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여러 곳에서 시도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도시재생공간 등 시민의 삶터와 연결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필요가 민주적으로 수렴되면서 구축된 공간일수록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언급된다.

1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손꼽히는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황근백

2

3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도서관마을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생활SOC이다. 도서관마을은 동네에 있던 5채의 단독주택과 3채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3채의 집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헐어 청소년 공연장과 주민들의 도서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독특한 마을공간이다. 2008년 자치구가 부지를 매입한 후 주민들의 지난한 참여 과정, 서울시 지원, 건축공모 등의 복합적 과정을 거쳐 2015년 개관했다. 현재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중요한 선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은 원효로 구舊청사를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교육 인프라 시설로 재생시킨 곳으로 2013~17년에 조성되었다.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은 활용 방안 결정 및 완공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선정추진위원회 구성, 사전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및 건물 명칭에 대한 주민공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청소년복합이용시설로 재탄생하게 된 사례이다. 이 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국 지역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기 시작해 개관 후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생활문화센터도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이다. 부산 광안리 해변에 위치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예술가, 관광객, 주변 문화공간과도 시너지를 빚어내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도서관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대표적 공간이다. 충북 증평군에 있는 군립도서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 해소의 모범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도서관 외 평생학습관,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북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사업 간 부처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운영으로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이 지향하듯 국민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생활권에 밀착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 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공모나 참여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가 많지 않아 국유지를 전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사업 내용이 주로 건물 중심이어서 소규모 공원 등과 같이 생활밀착형 환경 여건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SOC 정책실행과정 모니터링에 기초해 법제적 보완이나 정책 추진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생활SOC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말 그대로 실사용자인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이 되는 "생활 속 SOC"로 구축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역 주도의 건강한 커뮤니티로 발현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구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는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처 간의 행정 절차와 사업 추진 관행, 중간 조직과의 소통 체계 등이 이질적이어서 실제 사업 추진에서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SOC 복합화는 단지 시설의 복합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서 드러난 필요성이 복합적 기능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SOC를 통해 도시의 포용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밀착 전문 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문화기획자, 마을건축가, 마을경관 전문가 등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민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비록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 사회 전환에 연결되는 미래지향적 사회기반사업이다.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지 시설을 조성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이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글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축제, 지역문화,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2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 문화연구소이자 문화교육 단체인 문화다움 대표이다. 문화도시, 근대문화재, 축제, 농어촌청년희망 등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과 문화현장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증평군립도서관**

4

5

2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실내
3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1층 전화박스
4, 5 충북 증평군 증평군립도서관 내부

Preview

24
미리보기
2020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

26
미리보기
2020 성남청년작가전 2
〈이두현: 흔적〉

27
미리보기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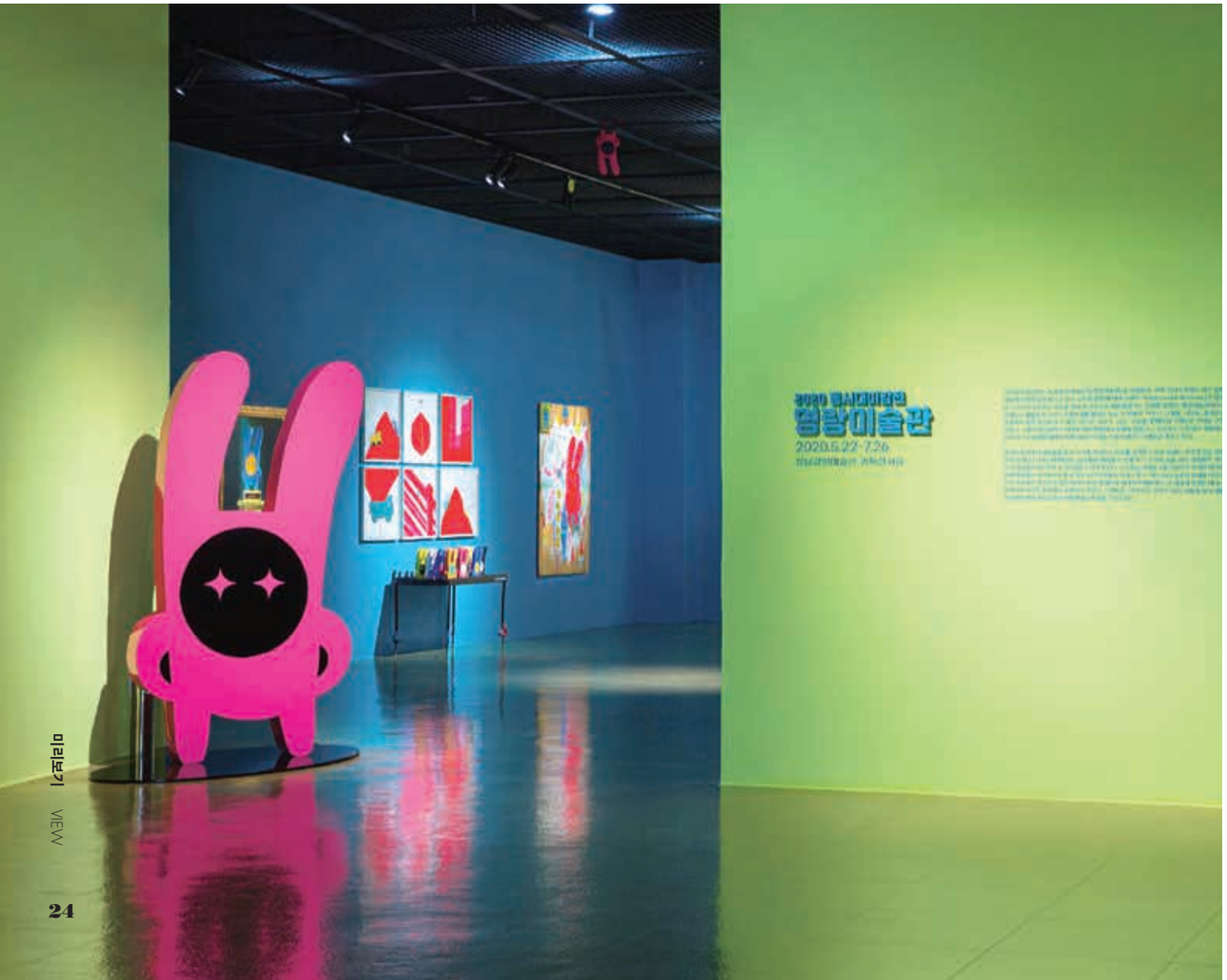
28
미리보기
연극만원
〈쉬어 매드니스〉
〈열여덟 어른〉

30
공연장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리뉴얼

2020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

뉴트로를 읽다

성남큐브미술관의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는 '뉴트로 문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합쳐진 신조어인 뉴트로는
복고를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즐기는 문화로, 기존 복고 문화와는 달리
과거의 문화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낸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여기에 '재미'라는 요소까지 첨가해 아날로그 세대들에게는 추억과 그리움을,
과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사회의 무거움을 작가 특유의 놀이 형식으로 보여주는 빠키 작가, 화려한 원색의 향연을 보여주는 서인지 작가, 명랑만화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는 신창용 작가, 동양화를 기본으로 동서양의 믹스매치를 빚어내는 홍지윤 작가, 대형 오브제와 수백 권의 책을 설치미술로 재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홍신소까지,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펼쳐낸 '명랑한 뉴트로'의 유쾌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5월 22일 성남문화재단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됐으며, 현장 관람은 6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일 4회, 회차당 관람 인원 50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과장

2020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
일시 6월 2일~7월 26일(월 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9

2020 성남청년작가전 2 〈이두현: 흔적〉

인두로 새긴 마음의 풍경화

성남문화재단은 2020년 두 번째 성남청년작가전으로 〈이두현: 흔적〉을 선보인다. 성남청년작가전은 지역의 청년작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5년 첫 시작 이래 지금까지 50여 명의 지역작가를 일반에 소개해왔다. 이번 작가전은 이두현 작가의 회화, 입체 작품 30여 점이 반달갤러리 전관 1~2층에 걸쳐 전시된다.

이두현, 〈떨어지고, 가라앉고 그리고 떠오르고〉
117×364cm,
캔버스에 전기인두로 태움,
유채, 아크릴채색,
2014-2015

이두현은 평면회화의 주재료이기도 한 캔버스에 유화나 아크릴로 채색하는 방식이 아닌, 인두로 태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 '낙화烙畵'라는 전통 기법을 빌려 자신만의 작업을 해오고 있다.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도전으로 보인다. 작가의 초기 작업부터 꾸준히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는 전자기판이다.

이두현의 작품 속 전자기판은 단순한 전자 회로의 의미가 아닌 현대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에너지의 순환과 개인과 단체, 사회적 관계 등 작품 안에서는 작가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인다. 어느 산업 시설의 구조물,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의 모습,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인간의 모습 등, 이전 작업에서 뚜렷하게 보이던 형상들은 최근 작업에서는 모호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의 작업들이 물성에 집중했다면 최근 작업에서는 회화적 표현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익숙한 듯 낯선 작가의 심리적 풍경들은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외침처럼,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 존재하는 듯하다.

이 시대가 청년작가들이 온전히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들도 저마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과 작업을 병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창작 환경이 아닌, 작가로서의 생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작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과장

2020 성남청년작가전 2 〈이두현: 흔적〉
일시 6월 19일~7월 12일(월 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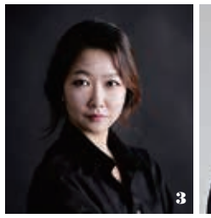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눈보다 귀가 즐거운 오페라

개관 이후 꾸준한 자체제작 오페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여온 성남문화재단이 보다 친근하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브랜드 콘서트 시리즈 〈오페라정원〉을 선보인다. 오페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대 장치와 의상은 최소화해 진행되는 콘서트 오페라로, 티켓 가격의 부담은 줄이고 오롯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실속형 무대다.

일반적인 '오페라' 공연이라 하면 오케스트라는 움푹 파인 무대 앞 '피트'로 들어가고, 화려한 세트가 설치된 무대에서는 성악가들이 의상을 차려입고 노래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볼거리에 치중하느라 음악이 뒤로 밀리거나 무대 제작 등으로 제작비가 솟구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오페라를 콘서트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바로 성남아트센터가 새롭게 기획한 〈오페라정원〉도 그러한 콘서트 오페라(또는 오페라 콘체르탄테)이다.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가 자리하고, 성악가들은 그 앞에서 적당한 수준의 의상을 입고, 소품을 활용해 적절한 연기를 하게 된다. 눈보다 귀가 더 중요한 음악의 본질에 집중하는 오페라 감상이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정원〉의 첫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걸작 〈피가로의 결혼〉이다. 오페라라는 장르의 첫 번째 정점을 이룩한 모차르트는 〈돈 조반니〉 〈마술피리〉 등 명작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피가로의 결혼〉이 우뚝 솟아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폰테가 쓴 대본은 겉으로는 재미 만점의 희곡이지만 '백작이 한 수고라고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뿐'이라는 보마르셰의 원작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모차르트는 절정의 솜씨로 천의무봉의 노래들을 풀어낸다. 영화 〈쇼생크 탈출〉로 유명해진 '편지의 이중창'이나 피가로가 부르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케루비노의 '그대는 아는가' 등 가장 많은 히트곡을 담은 오페라 중 하나라고 해도 좋다. 관현악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 아리아나 카바티나와 함께할 때에도 관현악에 귀를 기울여야 이 작품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오스트리아 티롤 주립극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홍석원이, 연출은 엄숙정이 맡는다. 연주는 바로크 음악과 고전시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로, 본고장에서 활약 중인 홍석원과 만나 맵시 있는 모차르트 사운드를 구현할 것으로 믿어본다. 또 오페라 애호가로 알려진 이정헌 JTBC 앵커가 해설을 맡아 관객을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일시 7월 11일(토) 17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1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2, 3, 4
지휘자 홍석원
연출가 엄숙정
진행자 이정헌

연극만원 〈쉬어 매드니스〉 〈열여덟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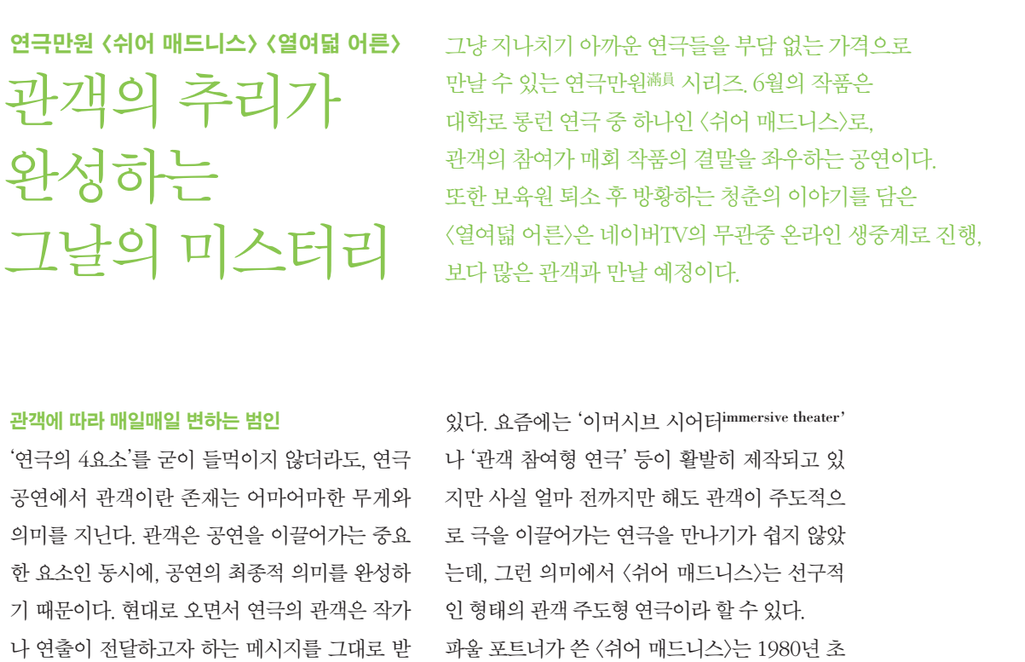
관객의 추리가 완성하는 그날의 미스터리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연극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員 시리즈. 6월의 작품은 대학로 롱런 연극 중 하나인 〈쉬어 매드니스〉로, 관객의 참여가 매회 작품의 결말을 좌우하는 공연이다. 또한 보육원 퇴소 후 방황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열여덟 어른〉은 네이버TV의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관객에 따라 매일매일 변하는 범인

'연극의 4요소'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연극 공연에서 관객이란 존재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의미를 지닌다. 관객은 공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공연의 최종적 의미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현대로 오면서 연극의 관객은 작가나 연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고 스스로의 의미망을 완성하는 주체적 존재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er'나 '관객 참여형 연극' 등이 활발히 제작되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객이 주도적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연극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쉬어 매드니스〉는 선구적인 형태의 관객 주도형 연극이라 할 수 있다.

파울 포트너가 쓴 〈쉬어 매드니스〉는 1980년 초연 이후 미국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난 장기 공연 기록을 가진 작품으로 지금도 전 세계 22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코믹하면서도 짜릿한 추리의 묘미가 있는 장르적 특성, 개성 뚜렷한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 등 여러 인기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매력은 관객의 추리에 따라 매번 다른 결말로 끝을 맺는 독특한 형식에 있다.



1

2

늘 떠들썩한 '쉬어 매드니스' 미용실 위층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손님으로 가장해 숨어 있던 형사들이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4명의 용의자는 각자 치밀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관객들은 사건의 목격자이자 배심원이 되어 용의자들을 심문하고, 나름대로 추리를 하며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매회 관객이 다르니 추리와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쉬어 매드니스〉는 바로 이 점에 착안, 범인이 다른 4개의 결말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관객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말로 극을 이끌어간다. 관객 스스로 자신의 추리와 선택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결말을 통해, 적극적인 창조자로서 관객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준비되지 않은 세상과 마주하기

박도령 원작, 유나영 각색·연출의 〈열여덟 어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 조실부모 등으로 보호자가 없어 가정위탁, 양육 시설, 공동생활 등의 사회 시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인이라 생각하는 19세가 되기도 전에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 학교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맨몸으로 사회에 나와 삶의 터전과 생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들의 열여덟은 막막하기만 하다.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열여덟 어른〉은 실제 보육원 출신으로 현재 배우를 꿈꾸며 연극을 공부하는 박도령이 쓴 작품으로, 보육 시설에서의 실제 경험과 세상에 나와 부딪치면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같은 보육원 출신인 두 친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보육원 친구 성진의 수목장을 찾아 예전의 기억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에 극적인 사건이랄 것도 없지만, 작가 스스로의 경험과 고민이 생생히 담겨 있어 담담하면서도 선명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다. 온갖 규율과 규제로 답답함을 느끼던 보육원 생활과 이후 세상에 나와 느낀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엄습해온 불안과 경제적 압박,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팍팍한 현실 등 작가가 느낀 솔직한 감정들이 관객들에게 먹먹한 감정을 전한다. 작가인 박도령은 대본뿐만 아니라 직접 출연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단 1회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며, 6월 20일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글 **김주연** 연극 칼럼니스트

연극만원 〈쉬어 매드니스〉
일시 6월 26일~28일 금 16시·20시, 토 14시·17시, 일 14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연극만원 〈열여덟 어른〉
일시 6월 20일(토) 17시 *네이버TV 생중계
문의 031-78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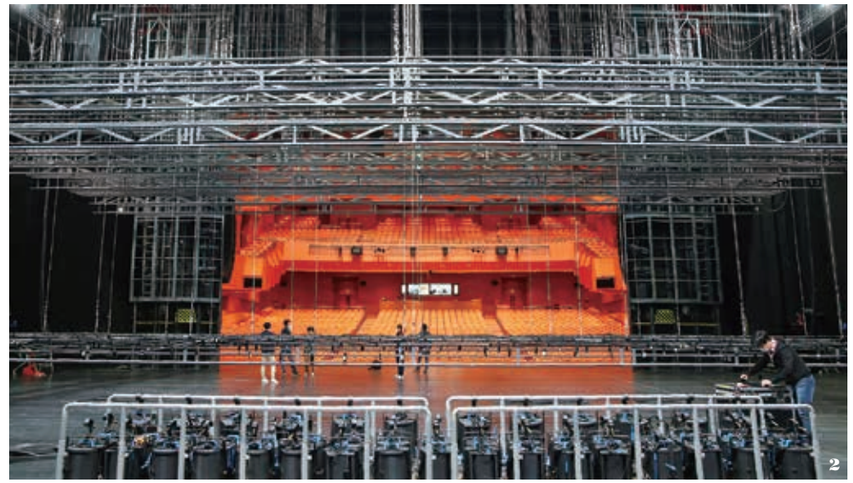
1 연극 〈쉬어 매드니스〉

2 연극 〈열여덟 어른〉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리뉴얼

다시 막이 오르면, 감동이 시작된다

텅 빈 객석, 불이 꺼진 무대. 코로나19가 모두의 일상을 강타한 지금, 공연장에도 '휴관'이라는 적막이 내려앉은 지 수개월이 지났다. 온라인 스트리밍, 무관중 생중계가 불가피한 대안으로 등장했을지라도, 공연의 본질은 바로 그 순간 현장에서 지켜보는 감동일 터이다. 관객을 다시 만나는 그날,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무대 스태프들의 하루하루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치열했고 뜨거웠다.



1, 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내부. 휴관 중에도 크고 작은 정비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다분히 진부하지만 그만큼 적절한 문구이기도 했다. 공연장이 휴관에 돌입한 순간, 누군가에게는 고요히 멈춰 있는 공간인 듯 보였겠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 무대운영부 직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불가항력으로 다가온 공백의 위기를 어떻게 가장 값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가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관객을 마주해야 할까? 정답은 더욱 완벽한 무대를 위한 끊임없는 무대 정비와 개선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3월 초,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3층 후면 객석을 일부 조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페라하우스 내 '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Follow Pin Spotlight'의 이동 설치를 위해서다. 흔히 '핀 조명'이라고 불리는 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는 뮤지컬과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로, 무대 위 주역을 동그랗게 감싸며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명이 바로 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다. 이번 작업에서는 기존 오페라하우스 객석 천장에서 3층 객석 후면으로 조명 위치를 변경, 관객의 시야를 개선하고 공연연출 시 최적의 효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사각을 개선하는 작업을 마쳤다.

국내 공연장 최초 디지털 인터컴 시스템

성남아트센터 3개 공연장(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의 디지털 인터컴intercom 시스템 교체는 이번 리뉴얼의 메인이자, 국내 공연장 중 최초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컴은 공연 중 출연진과 제작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 장비로, 공연의 연출과 효과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스태프와 출연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무대의 완성도뿐 아니라 공연장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05년 개관 이후 아날로그 인터컴 장비를 사용해온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클리어컴Clear-Com'의 디지털 인터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표준 장비로 지정되어 안정성과 성능을 증명한 시스템이다. 현재 백스테이지의 무대 감독실과 조명·음향·영상 조정실 등 오페라하우스 곳곳에 장비 배치를 완료한 상태로, 다채널 통신과 원활한 구성 변경, 모니터링 등 스태프·출연진의 전방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 대다수 형태와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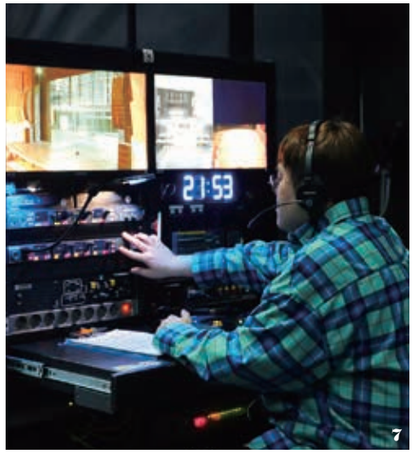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오페라하우스 전후면 빔프로젝터 역시 30,000안시의 고사양으로 교체, 한층 정교하고 생생한 무대 연출이 가능해졌다. 또 디지털 공연장 시대를 맞아 고화질 영상 녹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의 영상 시스템을 기존 SD급(약 40만 화소)에서 Full HD급(약 200만 화소)으로 교체한 데 이어, 분장실과 공연장 로비 등 각 공간별 모니터 화질도 대폭 개선했다. 콘서트홀과 앙상블시어터에도 영상과 음향을 일괄 제어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 더욱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3

4

5

6



7

3, 6
객석 3층 후면으로 새롭게 이동한 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최적의 효과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치와 투사각을 개선했다

4
콘서트홀 무대 샌딩 작업. 마루의 스크래치 제거와 도장 작업을 통해 무대의 우아한 색감을 복원한다

5
오페라하우스 빔프로젝터와 영상 시스템도 고사양으로 교체를 마쳤다

7
성남아트센터가 국내 공연장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인터컴 시스템. 다채널 통신과 원활한 구성 변경 등 공연 진행을 위한 전방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공연장 개선과 정비 작업은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한 철저한 방역 작업, 무대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콘서트홀 무대 샌딩 작업처럼 관객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틈새까지 세심하게 이어졌다. 무대 마루의 스크래치 제거와 도장 작업을 통해 나무의 우아한 색감을 복원하는 샌딩 작업은 특히 클래식 전용 홀인 콘서트홀 무대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선사한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 위로 독주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고요한 조명에 비친 무대의 따뜻한 온기에서부터 이미 공연의 감동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감동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앞두고 공연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온라인'과 '디지털'이라는 화두는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이기도 하다. 성남문화재단 역시 마티네 콘서트, 연극만원 등 주요 공연의 온라인 생중계는 물론, 노재천 대표이사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스마트 공연장' 운영에 발맞춰 공연 스태프 화상 회의 등 다양한 기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의 본질은 결국 현장의 무대가 주는 감동이라는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의 변화와 지각 변동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술의 본질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성남청년작가전2: 이두현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의 청년작가를 응원합니다
흔적 痕迹
2020. 6. 19 – 7. 1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개관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031 783 8142-9 www.snab.or.kr

Art Curator

36
칼럼
코로나19 이후 공연계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38
칼럼
코로나 시대,
공연계의 대처법

42
취향의 책장
시공간을 넘어 재탄생한
소설 『위험한 관계』

46
영화 속 클래식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8
문학과 책
출판계 새로운 돌풍
'각본집'

50
이슈&트렌드
트로트 열풍을
진단하다

52
아트 시티를 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코로나19 이후 공연계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온라인 콘텐츠와 공존하려면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 · BC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 AC로 구분될 것이다." - 〈뉴욕타임스〉, 3월 17일 토머스 프리드먼의 칼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좋게 치료제가 나와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지만 공연예술은 생존이 위협받고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다. 원칙적으로 공연예술은 무대 위의 퍼포머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1회성의 예술이다. 라이브가 주는 예술가와 관객의 상호작용은 공연예술의 매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구촌에서 공연장들이 속속 문을 닫고 공연예술 축제가 취소됐다. 그나마 방역에 성공적이었던 한국에서는 공연이 계속 이어졌지만 큰 폭으로 위축됐다.

© 최재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연계의 최고 관심사는 '온라인 공연' '랜선 공연' 등으로 불리는 공연 온라인 스트리밍online streaming이다. 즉 PC나 휴대전화의 인터넷 환경에서 음원, 영상 등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연극, 오페라, 콘서트, 뮤지컬, 무용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 세계 공연 기관이나 주요 단체들 사이에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붐이 일어난 것은 3월 중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베를린필)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부터 시작됐다. 앞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몇몇 아티스트들이 유튜브 등에 연주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공연계의 트렌드를 만든 것은 베를린필과 MET다. 두 기관은 영상 콘텐츠 제작과 그 유료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그동안 공연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연의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이 이뤄지고 있었다. 네이버가 2009년 대중음악 분야에서 처음 시도한 이후 확대, 공연계에서는 2016년 뮤지컬 〈팬레터〉로 출발을 알렸다. 지금은 홍보 마케팅을 위해 네이버로 전막 실황 중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됐을 정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공공 극장들은 무관중 공연의 온라인 스트리밍에 적극적이 됐다. 또 예술의전당이 콘텐츠 영상화 사업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을 통해 축적해놨던 공연들을 유튜브로 스트리밍하면서 다른 국공립 극장과 단체들 역시 그동안 아카이빙용으로 만들었던 공연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세종문화회관 등 몇몇 공공 극장은 부랴부랴 예산을 투입해 무관중 공연을 만들어 스트리밍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네이버TV에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현장

새로운 장르로 떠오른 '온라인 유통'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공연 온라인 스트리밍은 기존 공연의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여겨지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이 예술가와 관객을 잇는 핵심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공연 영상 콘텐츠를 새로운 장르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공연계에서는 공연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듯하다. 한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공연장들이 개관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데다 설사 공연장을 재개관하더라도 언택트Untact, 비대면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관객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내 라이브 공연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품을 지양하게 만드는 한편 야외 공연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례로 영국국립오페라(ENO)는 9월 '드라이브인 영화관'처럼 야외에서 자동차에 탄 채 오페라를 보는 '드라이브인 오페라'를 3주간 열겠다고 발표했다. 〈라 보엠〉 등의 작품이 60~90분으로 축소돼 공연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스트리밍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중음악의 경우 유료화가 가능해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네이버와 손잡고 그룹 슈퍼엠의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더 퓨처'를 선보였다. 세계 최초 온라인 맞춤형 유료 콘서트로 전 세계 109개국에서 모인 75,000명이 33,000원을 내고 참석,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연예술 분야에서 유료화는 대중적이고 스타가 종종 출연하는 뮤지컬, NT나 MET, 베를린 필처럼 세계적 브랜드를 자랑하는 기관 등이 아니면 쉽지 않다. 뮤지컬의 경우 영미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브로드웨이 HD' 등 유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존재했다. 이에 비해 현대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공연 등 팬층이 두텁지 않은 장르의 경우엔 수익 대신 아카이빙과 교육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처음부터 유료화를 목적으로 공들여 영상을 찍었던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예술의전당의 'SAC on Screen'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관용 및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었다. 그래서 최근 국내 온라인 공연 중에서는 단조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예술의전당이 국고 지원을 받아 'SAC on Screen'을 만들면서 모두 무료로 한 것은 유료 전환이나 저작권 문제 등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앞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의 일반화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연 영상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특히 유료화보다도 저작권 문제, 영상물 관리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후죽순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플랫폼도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연계는 가속화된 디지털화, 영상화 등의 변화를 거부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스포츠레저부장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현재 문화스포츠레저부장을 맡고 있다. 2003년 문화부에서 공연을 담당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고, 다양한 공연 현장과 정책을 다루는 공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공연이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공연계의 대처법

가까워지려면 잠시 멀어져야

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 대응을 요구한다. 공연계에 발생한 이슈를 Q&A 형식으로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Q 오프라인 공연이 없을 때 아티스트와 공연계 인력의 수입은?

A 음악계에서는 성악과 기악, 공립 기관과 민간 단체 고용 사이에 체감하는 피해 차이가 큰 편이다. 연습 과정에서 비말을 동반하는 오페라와 합창 공연은 지역을 불문하고 중단됐다. 리허설에 들어갔지만 공연이 열리지 못한 경우, 스타급 성악가들에겐 수당이 지급되지만 신인은 이에 항의하면 추후 캐스팅에서 배제될 위험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사례가 많았다. 프랑스에선 자국 내 프리랜서 오페라 성악가들이 당하는 임금 체불의 불이익을 대신 해결하는 압력 단체 '유니송Unisson'이 출범했다. 기악 분야에서 공립 및 방송국 소속 악단원은 급여를 받고 취소된 공연 수당만 받지 못했다. 반면 공연 수당에 크게 의존하는 민간 악단은 재정상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 피아니스트의 경우, 교원 연주가는 급여를 보장받았지만, 전문 연주가 대부분은 공연 수입이 없어 원격 화상 레슨에 나서는 건반 주자도 나왔다.

대부분의 국제 공연 매니지먼트가 공연이 없으니 중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창사 이래 월별 수입이 '0'에 수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뉴욕 메트 오페라는 제작 인력을 일시 해고했고, 유럽 대형 매니지먼트들도 상반기까지 대량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무실 축소, 비대면 업무 전환을 꾀하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1

©Unisson Association

Q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도 일부 공연은 왜 열렸나?

A 지난 5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제한을 완화하기 전까지, 기획·대관의 구분이 없이 공연 개최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관자의 의지가 있으면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유학을 마친 연주자의 귀국 독주회, 교원 임용·재임용에 필요한 오프라인 이벤트, 공적 기금을 제때 쓰지 않으면 반환 위기에 처한 행사가 주종을 이뤘다. 이런 공연에선 확진자 발생 시 특히 당일 초대권 입장객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 공연장 대관 규약에 공연장 대표의 직권으로 감염 위험 시 공연을 중지하고 환불 규정을 병기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적자를 보더라도 공연을 강행하는 측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Q 공연장의 적절한 코로나 예방 대처는?

A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공연장 내 세정제 비치에 그쳤다. 지금은 국공립과 민영을 불문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공연장 진입과 병원균 전파를 방지하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 관람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자, 호흡기 질환 증상자의 사전 관람 제한 공고는 수신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반복해서 안내하는 것이 경각심 유지에 필요하다. 공연 당일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제한, 체온 측정 시 37.5도가 넘는 관객의 입장 제한도 해외 시장이 주목하는 한국식 대처다.

국립극장 관람 매뉴얼은 관람객 중 확진자 발생 시 '시간과의 싸움'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국립극장은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연락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기관 제출 목적으로 수집하고 종료 시 1개월 후에는 일괄 폐기를 공지했다. 이태원 클럽 사태처럼 연락처 미기재 인원을 찾느라 방역 당국이 시간을 낭비할 소지를 줄인다. 예술의전당은 로비 입장, 티켓 수령, 극장 입장 시 입장객 간 간격 유지에 힘쓰고 있다. 매표소에 아크릴판을 설치해 직원을 보호하고, 물품 보관 시 접촉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물품 종류도 줄였다. 출입 시 입장객이 직접 티켓을 잘라서 수표함에 넣는 방식도 택했다. 차제에 검표를 QR코드,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 대체해서 접촉을 막는 파리 오페라 방식도 도입해볼 만하다.

일본의 클래식 매니지먼트사 가지모토Kajimoto의 공연 당일 수칙도 실질적이다. CD와 프로그램북 판매, 사인회를 중지했다. 프로그램북은 회사 홈페이지에 PDF 파일 게시로 대신하고 현물 프로그램북은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백스테이지 출입자도 제한했다.

1
프랑스 오페라 가수 권익 보호를 위한 압력 단체로 출범한 유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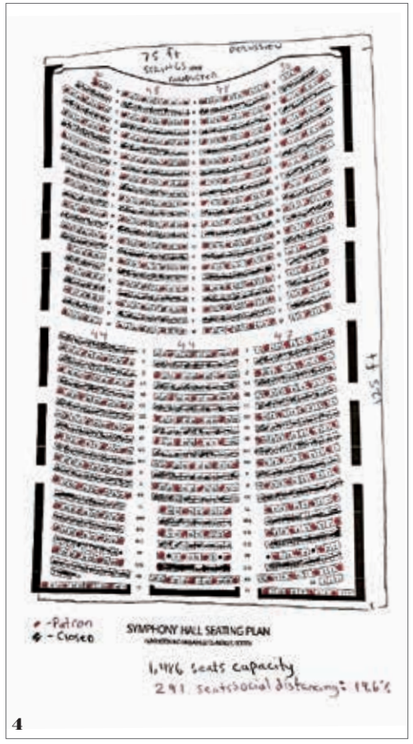
2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등 해외의 경우 티켓 바코드 스캐닝으로 검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미국 아티스네이플스의 바코드 검표 시연 모습

2

©Photo: Jon Austria/Naples Daily News USA TODAY NETWORK – FLORIDA

©Berlin Philharmonic / Stephan Rabold

3



©Middle Class Artist

4

3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은 지난 3월 무관중 공연을 디지털 콘서트홀로 중계했다

4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보스턴 심포니홀 자리 배치도

Q 향후 외국인 연주자, 재외 한국인 연주자의 국내 공연은?

A 국내 방역 당국은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4월 1일부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명했다.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는 3월 22일 예정됐던 독주회 직전에 입국해 가까스로 조치 적용을 피했다. 국내 거처가 있는 재외 한국인 연주자는 2주간 자가 격리 후 국내 공연에 참가하기도 한다.

격리 기간에는 앙상블 연습이 불가능해 최소 3주 전에 입국해야 리허설 기간이 확보된다. 초청 측은 연주자의 격리 완료 여부를 소셜미디어로 공지해서 감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외국인 연주자의 국내 공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주간 시설 격리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고, 격리를 견디는 정신적 고충이 상당하다. 한국에 다녀오면 본국에서 2주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많다.

Q 하반기 해외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은?

A 우선 주최 측의 경제성을 따질 때, 성사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 배치로 티켓을 오픈하면 기존 좌석의 약 40퍼센트 정도만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가 지난 5월, 민간 기획사 공연에는 지그재그 방식의 '띄어 앉기' 자리 배치를 유예해달라고 호소한 배경이다.

아울러 민간 기획사가 지방 아트센터에 공연 권리(티켓 판매 수익 포함)를 판매하고 취하던 중계 수익 모델이 무력화됐다.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예정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 예산을 포함한 각종 재원을 복구 사업에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하는 지자체가 엄존한다. 대형 공연 후원에 호의적인 기업의 지원도 올해는 힘들다. 장시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중장년층 관객과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 티켓 주 구매층의 심리 변화는 면밀히 살펴볼 트렌드다.

행정 이슈도 만만치 않다. 내한 단체의 경우,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공연 비자를 받아야 흥행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공관은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해 건강 상태 확인서 및 필요 시 의료 기관이 발부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NHS) 업무가 코로나19 환자 대응 이외의 분야에서는 마비된 상황으로, 진단서를 받으려면 민간 클리닉에 가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약 400파운드(70만 원)가 들고, 악단 전원 제출이면 약 7,000만 원이 소요된다.

100여 명 규모 악단이 한국에 들어오면 2주간 정부가 정한 시설에 1인 1실로 격리되고 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이다. 공연 주최사가 이 비용을 책임진다면 1인당 약 150만 원 기준, 총 1억5,0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생긴다. 역시 오케스트라 단원도 내한 공연 후 본국에 돌아가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강력하게 권고받는다.

Q 해외 연주자 입국 시 자가 격리 예외 가능성은?

A 현재 정부는 입국 비자가 외교(A1), 공무(A2), 협정(A3), 계약 및 투자 등 중요 사업상 목적일 경우 14일 격리 예외를 인정한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6일 외국 기업인 입국 시 격리 조치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공연 비자 소지 외국인의 자가 격리 특례를 요청하려면 이를 대표로 주장할 공연계 이익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형식이 효과적이다. 리사이틀 연주자 1인의 경우 10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나 발레단과 비교해 이동 시 감염 위험이 다른 점을 설득하면, 코로나19 사태 호전 시 독주자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예외를 요청하는 방식이 시민 사회의 호응을 얻어내는 데에도 보다 유리하다.

Q 공연계는 언제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까?

A 유럽과 미국의 공연장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올가을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론 4월 초, 전前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 이후 전반적으로 클래식 시장의 관행을 재점검하는 추세다.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제트기를 이용한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의 원거리 투어를 자제하자는 유럽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포옹과 볼키스로 친근함을 표시하던 지중해 지역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점 역시 클래식 공연 중 기본 매너를 돌아보게 한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은 길버트, 하딩, 카넬라키스와의 화상 회의에서 "빠르면 올해 11~12월에 정상 공연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전까지 국제 이동은 생존을 위해 자제하는 움직임이 명백하다.

글 **한정호** 음악 칼럼니스트, 에투알클래식 & 컨설팅 대표
월간 『객석』에서 클래식과 무용을 담당했고 일본 오케스트라 연맹, 공연기획사 빈체로에서 일했다. 런던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정책과 매니지먼트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에투알클래식 & 컨설팅 대표로 있다.

시공간을 넘어 재탄생한 소설 『위험한 관계』

중독적인 뒷담화 속 사랑

탐욕은 끝이 없다. 사랑은 쉽지 않다. 부와 명예를 두 손 가득 쥔 이들도 사랑과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결코 감추지 못한 욕망의 맨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18세기 말 등장한 소설 『위험한 관계』는 사랑과 욕망으로 뒤틀리는 남녀 관계를 서간체 형식에 탁월하게 녹인 작품으로, 시대를 거듭하고 국적을 달리하며 재탄생하고 있다. 어디든 있는 이야기지만 언제 봐도 재미있다.

'서간체 소설'은 편지글로 구성된 소설을 뜻한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와 메리 앤 섀퍼·애니 배로스의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같은 작품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쇼데를로 드 라클로Choderlos de Laclos의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역시 마찬가지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겠으나, 이른바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소설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랑'을 논한다는 것이다. 자살에 이르는 치열한 사랑(『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발견한 사랑(『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고아인 여자 청소년이 자립하기까지 성장하며 찾아낸 사랑(『키다리 아저씨』)같은 식인데, 서간체 소설의 특징이라면 '편지'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쓰게 되며 그 글에는 '수신인'이 있다는 것이다. 밤에 쓴 편지를 부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받을 사람보다 쓰는 사람 마음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이 되는 편지는 어떨까. 작가는 많은 요소를 정교하게 조율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전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이 깊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상황을 '위에서' 한눈에 알기 쉽게 조망할 수 없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때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아서다. 그런 서간체 소설의 묘미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은 바로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다.

1
원작을 스크린에 재현한 1988년 영화 〈위험한 관계〉

2
영국의 삽화가 오브리 빈센트Aubrey Vincent가 그린 발몽 자작. 1896년판 『위험한 관계』의 권두 삽화다

뒷담화 속 '위험한 관계': 18세기 말, 프랑스 사교계

1782년에 발표된 『위험한 관계』의 저자 쇼데를로 드 라클로는 군인이었다. 18세기 말, 프랑스 사교계의 허영과 성적 욕망을 여러 인물들이 주고받는 총 175통의 편지를 통해 드러낸 『위험한 관계』는 어떤 서간체 소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편지의 저자로 등장한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편지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발발 직전의 프랑스 귀족 사회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쓴 편지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사람이 여럿이라 해도 그들은 모두 사교계 가십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더해가며 소문을 부풀려가는 『위험한 관계』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낯익은 것이다.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권력도 부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을 즐기는 후작부인은 자신과 똑같은 발몽 자작과 음모를 꾸민다. 두 사람은 미혼 여성인 세실과 정숙한 투르벨 부인을 두고 음모를 꾸민다.

그러니까 『위험한 관계』는 어디선가 본 적 있고 들은 적 있는 이야기다. 다만 무대가 18세기 프랑스 사교계라는 것뿐. 소재만 따지면 흔한 가십으로 보이지만, 라클로는 많은 이들의 편지를 통해 거짓말과 소문, 무구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호기심, 동정하는 척 재미있어하는 이들의 잔인한 관심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8세기 프랑스 사교계'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작품은 소설과 같은 제목으로 영화

화된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1988년작 〈위험한 관계〉다.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글렌 클로즈, 발몽 자작은 존 말코비치, 세실은 우마 서먼, 투르벨 부인은 미셸 파이퍼가 연기했으며, 음모에 희생되는 청년 당스니 역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했다. 제6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각색상·미술상·의상상을 받았다. 글렌 클로즈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18세기 궁정 문화를 그대로 재현해낸 미술과 의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서간체 소설인 원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영화화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보고인지 증명해냈다. 각색상을 받은 크리스토퍼 햄튼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희곡 『위험한 관계』를 영화 시나리오로 옮겼는데, 이후 소설 『위험한 관계』를 영화화하는 시도들은 모두 이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다. 1989년작 〈발몽〉이다. 밀로스 포만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아네트 베닝, 발몽은 콜린 퍼스, 세실은 페어루자 볼크, 투르벨 부인은 메그 틸리가 연기했다. 『위험한 관계』에서 메르테유 후작부인과 발몽 자작이 (내용으로나 중요도로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지만 메르테유 쪽에 무게중심을 약간 더 두고 있다면, 〈발몽〉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발몽 자작이 중심이다. 〈발몽〉은 이 이야기가 행하기 가장 쉬운 오류를 범해, 원작의 풍자적인 비극의 색채를 걷어내고 범상한 치정극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잔인한 의도'가 숨은 유혹:
20세기 말, 미국 뉴욕 고등학교

재미있는 각색은 『위험한 관계』를 다른 시공간으로 옮겨 심으면서 본격화되었다. 1999년에 만들어진 로저 컴블 감독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은 '잔인한 의도Cruel Intentions'라는 뜻의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18세기 프랑스 궁정을 20세기 말 뉴욕의 고등학교로 옮겨놓았다.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이 작품에서 캐서린 머튜일(사라 미셸 겔러)로, 발몽 자작은 세바스천 발몽(라이언 필립)으로, 세실은 세실 캘드웰(셀마 블레어)로, 투르벨 부인은 아넷 하그로브(리즈 위더스푼)로 바뀌며, 맨해튼 최상류층의 학교에서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캐서린과 세바스천이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모를 꾸민다. 아마도 현대의 '사교계'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처럼 좋은 집안의 학생들이 모인 십대들의 커뮤니티가 되겠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 절로 들 정도다. 원작 소설이든 영화든 모두 줄거리는 같은데,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가 순진하고 순결한 세실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몽 자작에게 세실을 유혹해달라고 한다. 발몽은 정조를 지키는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려다 사랑에 빠진다. 이런 계략싸움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결말인데, 바로 '승자가 없다'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욕망은 충족될 듯한 순간 직전에 매번 무산된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역시 십대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원작의 신랄한 결말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며 그 틀을 이었다. 이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는 역할을 맡은 라이언 필립과 리즈 위더스푼이 이후 결혼했다(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 영화에서 주요 등장인물을 연기한 배우들이 당대의 하이틴 스타였다는 점도 언급해야 할 듯하다. 사라 미셸 겔러는 드라마 〈미녀와 뱀파이어〉, 공포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1997]에 출연했고, 리즈 위더스푼은 같은 해에 찍은 〈일렉션〉과 2001년에 찍은 〈금발이 너무해〉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은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를 비롯한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연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위험한 관계』는 주인공 한두 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이 고루 중요한데, 그래서 당대의 주목받는 배우들을 한데 끌어모은 '초호화 캐스팅'이 되곤 한다.

점잔빼는 '스캔들':
18세기 말, 조선 양반가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 원작을 맨해튼 십대들의 이야기로 바꾸었다면, 2003년에 만들어진 이재용 감독 연출, 배용준·이미숙·전도연 주연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는 원작을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야기로 각색한 작품이다. 훨씬 보수적이며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각색에서 메르테유 후작부인은 유 판서의 정실부인인 조 씨(이미숙)로 바뀐다. 발몽은 조 씨의 사촌 동생 조원(배용준)으로, 그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풍류를 즐기며 지낸다. 조 씨 부인은 아들을 얻으려는 남편이 소실로 들이는 처녀 소옥(이소연)을 임신시켜달라고 조원에게 요구하고, 조원은 열녀문을 하사받은 숙부인(전도연)을 목표로 삼는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는 특히 블랙유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18세기 프랑스 사교계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그곳에는 열녀문 같은 건 없다) 보수적이고 위선적인 조선시대에, 성욕은 은근하게 추구되지만 어쩔 수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 모습은 21세기 관객의 헛웃음을 유발한다. 점잔빼는 존대어로 유혹의 말이 오갈 때, 아마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관객으로서 모처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12년에는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장쯔이·장백지가 주연을 맡은 영화 〈위험한 관계〉가 한 번 더 만들어졌다.

탐욕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극은 중독적이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진리. 『위험한 관계』가 꾸준히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유일 것이다. 언젠가 SF로 재해석된다 해도 놀랍지 않으리라.

3

4

5

3
영화 〈발몽〉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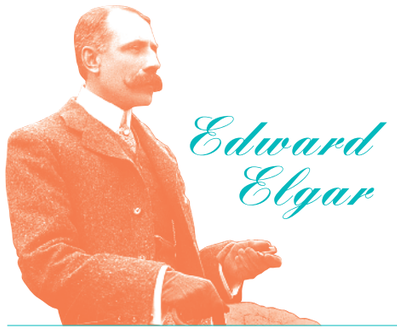
4
『위험한 관계』의 무대를 20세기 뉴욕으로 옮긴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5
조선판 『위험한 관계』인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글 **이다혜** 북 칼럼니스트, 〈씨네21〉 기자
글쓰기·라디오·팟캐스트 등을 통해 영화와 책을 소개하고 여성의 권리와 삶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다. 『출근길의 주문』 『아무튼, 스릴러』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썼고,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팟캐스트 '이다혜의 21세기 씨네픽스'를 진행하고 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돌아와요, 우아하고 삐딱하게



왜 형만 한 아우가 드물고, 원작만큼 빼어난 속편은 나오기 힘들까. 2017년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을 보다가 궁금해졌다. '킹스맨Kingsman'은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독립적인 비밀 첩보 조직이라는 가상의 단체다. 2015년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성공을 거두자 2년 뒤에 제작한 속편이 '골든 서클'이다.

"바뀌고 배울 의지만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전편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비밀 요원 '해리'(콜린 퍼스)는 동네 말썽꾼으로 허송세월하던 청년 '에그시'(태런 애저튼)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이 말을 들은 에그시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처럼요?"라고 반문한다.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여인도 교육을 통해서 요조숙녀로 거듭나는 것처럼, '청년 백수' 에그시도 제대로 훈련만 받는다면 최강의 첩보 요원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

거기에 에그시는 중동에서 임무 수행을 하던 아버지가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져서 희생했다는 훌륭한 전사前事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킹스맨은 무엇보다도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속편에서 매튜 본 감독은 〈킹스맨〉 시리즈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았다. 과연 액션 영화도 "바뀌고 배울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현란한 격투 장면부터 차량 추격전, 수중 잠수까지 10분 안에 모두 쏟아내는 초반부만 보면 속편 〈골든 서클〉은 분명 합격점에 가깝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갈아버리는' 잔인한 유머도 여전하다. 하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건 폭력의 강도나 액션의 규모가 아니다. 〈스타워즈〉 같은 출생의 비밀이든, 〈대부〉처럼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집안의 운명이든, 속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전편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 전편과 연속성·차별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성공한 속편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속편의 단점은 거꾸로 전편의 미덕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 〈킹스맨〉 시리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중적 영화에서 완성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는 주인공보다는 오히려 악당일 경우가 많다. 세계 정복 욕망에 불타지만 정작 "폭력은 딱 질색"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모순덩어리인 〈킹스맨〉 전편의 악당 '리치먼드 밸런타인'(새뮤얼 잭슨)처럼 말이다. 여기에 비하면 "작년 수익이 2500억 달러야. 세계 최고의 사업가인데 아무도 모르잖아"라면서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킹스맨〉 속편의 마약 카르텔 두목 '포피'(줄리앤 무어)는 다소 진부하고 평면적이었다.

귀족적인 우아함과 삐딱한 B급 정서의 공존이라는 〈킹스맨〉 특유의 매력이 증발했다는 점 역시 속편에서는 감점 요인이 됐다. 전편 〈시크릿 에이전트〉는 007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신사의 기품과 패배자들의 길거리 농담을 절묘하게 뒤섞었다. 주인공 에그시처럼 변변한 직업도 없이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부모에게 얹혀살면서 캐주얼 스포츠 복장으로 다니는 영국의 하층 계급 청년들을 '차브Chav'라고 부른다. 영화 자체에 신사와 차브라는 계층 대립의 코드가 숨어 있는 셈이다.

거기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비밀 요원들이 아서 왕과 마법사 멀린, 기사 랜슬롯 같은 암호명을 쓰면서 원탁의 기사처럼 행동하는 불일치도 여느 첩보물에서 찾기 힘든 묘미였다. "슈트는 신사들의 갑옷이고 킹스맨 요원들은 현대판 기사들"은 이런 기묘한 매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대사였다. 하지만 속편에서는 에그시가 능숙한 첩보 요원으로 훌쩍 성장하면서 영화적 긴장과 균열 역시 사라지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치적 올바름을 내팽개친 듯한 재미가 절정에 이르는 1편의 후반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1857~1934의 〈위풍당당 행진곡Pomp and Circumstance March〉이다. 작품 제목은 셰익스피어 〈오셀로〉의 3막 3장 대사에서 따온 것이다. 사악한 이아고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오셀로가 "안녕히 잘 가라. 왕군의 깃발과 빛나는 전쟁의 특징인 온갖 자랑스러운 과시와 행렬이여!"라고 한탄하는 대목이다. 파국을 예고하는 비극적 대사가 영국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음악 작품의 제목으로 쓰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전체 6곡의 〈위풍당당 행진곡〉 가운데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은 역시 1번 행진곡이다. 엘가는 유명한 중반부의 악상이 떠오르자 친구에게 "사람들을 쓰러뜨릴 선율을 찾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901년 10월 19일 리버풀에서 초연될 당시부터 열광적 반응을 얻었다. 1902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서도 노랫말을 붙여서 축가Coronation Ode에 다시 사용했다. '희망과 영광의 나라Land of Hope and Glory'라는 이 노래는 영국 국왕 대관식은 물론, 각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학 졸업식, 스포츠 대회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악당들이 연쇄 폭발하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잔인무도한 영화의 후반 장면에서 영국을 상징하는 음악을 사용한 짓궂은 상상력이야말로 〈킹스맨〉의 위악적 재미였다.

〈킹스맨〉 전편에서 비밀 요원 해리는 소설가 헤밍웨이의 말을 인용해서 후배 에그시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진정 고귀한 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속편의 운명이기도 하다. 올해 개봉을 앞둔 〈킹스맨〉 3편은 과연 헤밍웨이의 말에 어울리는 영화가 될 수 있을까.

Kingsman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5
감독 매튜 본
출연 콜린 퍼스, 태런 애저튼 외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최근작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한 『모차르트』가 있다.
사진 제공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출판계 새로운 돌풍 '각본집'

아직도 드라마, 영화만 보니? 난 대본집, 각본집도 본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각본에는 영화에 미처 담기지 못한 장면들이 있다. 극중 기택(송강호)과 충숙(장혜진)의 애정 신, 기정(박소담)이 동네 마트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는 장면, 민혁(박서준)과 기우(최우식)가 함께 술을 마시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다. 반대로 각본에는 없지만 영화에만 있는 장면이나 대사도 있다.

영화에는 각본이,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다. 모두 뛰어난 영상 작품의 근간이 되는 글이지만 연극의 바탕인 희곡이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나름대로 작가적 영역을 구축해온 것과 달리 각본과 대본은 철저히 영상을 보조하는 서브텍스트로만 여겨져왔다. 그러나 영상의 그늘 뒤에 가려 숨겨진 글로 살아왔던 이들이 최근 각종 '각본집' '대본집' 열풍과 함께 어엿한 단독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의 선두에는 단연 〈기생충〉이 있다. 지난 2월 〈기생충〉이 각본상 등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하며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특히 봉준호 감독이 직접 쓰고 그린 것으로 알려진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지난해 9월 출간된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는 아카데미상 수상 직후 전날 대비 26배 이상 판매되며 서점가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37,0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상상력의 모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의 구매가 이어진 것이다.

1

영화뿐만 아니다. 비슷한 시기,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스토브리그〉 이신화 작가 대본집이 함께 출간되며 〈기생충〉 각본집과 함께 각본집 & 대본집 열풍을 견인했다. 당시 2월 둘째 주 온라인서점 예스24의 소설·시·희곡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는 〈기생충〉 각본집이 1위를, 〈스토브리그〉 대본집 1, 2권이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했다. 그간 관련 분야 순위를 소설이나 시집이 독차지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같은 각본집 & 대본집 열풍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있다. 당시 이 영화를 두고 열성적 팬덤이 형성되며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본집 출간 요구가 빗발쳤다. 박찬욱 감독의 사진집을 출간한 적 있는 그책 출판사가 이에 화답해 각본집을 출간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16쇄를 찍으며 전에 없던 각본집 역사를 새로 썼다.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등 일부 수요에 따른 각본집 시장이 형성돼 있긴 했지만, 일반인들에게까지 각본집이 그만큼 주목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책 출판사는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이후 〈친절한 금자씨〉 〈박쥐〉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등 박찬욱 감독의 다른 각본집도 잇달아 출간했다.

2

3

4

좋아하는 작품의 모든 걸 갖고 싶은 팬을 위한 '굿즈'

〈아가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각본집 & 대본집 출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해당 영화나 드라마의 큰 흥행보다는 공고한 팬덤의 유무다. 시중에 출간된 각본집이나 대본집의 목록만 살펴봐도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보다는 오히려 시청률은 낮았어도 각자의 이유로 열성 팬을 양산했던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며 다각적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팬들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100만 명의 대중 관객보다는 10만 명의 열성팬이 좌우하는 시장인 셈이다.

여기에 '리커버' '한정판' 등 책을 단순히 읽을거리가 아닌 소장할 만한 수집품으로 여기는 정서가 더해져 각본집 & 대본집 시장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에 일반 서적을 출간해온 대형 출판사도 시장에 뛰어들어, 김영사는 최근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미디어콘텐츠 부서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스토브리그〉 대본집과 김은희 작가가 집필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대본집을 출간한 것도 김영사다. 교양이나 지식을 위한 책을 넘어, 일종의 '굿즈'가 된 책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1 영화 〈기생충〉 스토리보드북

2 영화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

3 드라마 〈스토브리그〉 대본집

4 영화 〈아가씨〉 각본집

영화·드라마 곁가지 너머 독자적 영역 구축

영화·드라마의 곁가지로 출간되는 책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단행본인 만큼 나름대로의 '읽는 즐거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출간된 김보라 감독의 영화 〈벌새〉 각본집에는 감독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비롯해 〈벡델테스트〉로 잘 알려진 미국의 그래픽 노블 작가 앨리슨 벡델과 김보라 감독의 대담, 최은영·남자은·김원영·정희진 등 다양한 필자의 비평도 함께 실려 한 달 만에 3쇄를 인쇄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영화 〈윤희에게〉 각본집은 영화 속 윤희와 준이 주고받은 편지를 시나리오 뒤에 별도로 추가하고, 영화 저널리스트가 진행한 감독 인터뷰를 함께 실어 영화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이끌어냈다. 단순히 지문+대사를 뛰어넘어 영상 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인접 텍스트의 역할을 지금의 각본집 & 대본집이 도맡고 있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국문학과 영상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한 기사를 쓴다.
사진 제공 **플레인아카이브, 김영사, 그책**

트로트 열풍을 진단하다

저급한 유흥문화에서 세련된 대중문화로,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

"스승님 공연에 제자들이 버스 대절해서 갈 때면 가인 누나가 꼭 앞에 나와 트로트를 부르곤 했죠. 그때부터 정말 잘했어요."
지난해 '창극계 아이돌' 김준수를 만났을 때, 박금희 명창 아래 동문수학했던 〈미스트롯〉 송가인에 대해 꺼낸 기억이다. 그렇다. 우리에게 트로트는 오랫동안 '고속버스 유흥문화'였다. 2014년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에서도 '트로트의 여왕'을 꿈꾸는 여주인공 정은지가 방송계의 외면 속에 재래시장과 밤무대, 노숙자 쉼터, 흑염소 농장까지 찾아가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런데 지금, 트로트는 가장 핫한 장르가 됐다.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예능이다 광고다 트로트 천지다. 유튜브에서도 트로트 콘텐츠가 대세다. 가수 홍진영의 개인 방송 '쌈바홍'은 구독자가 60만 명에 달하고, 가수 주현미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옛 노래를 들려주는 '주현미 TV'도 호응이 뜨겁다.

트로트는 공연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연 티켓 판매액(5,276억 원)이 전년(5,441억 원)보다 3% 감소한 와중에 콘서트 매출은 10% 늘었는데, 트로트 장르가 부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트로트 열풍'이 올해 가장 뜨거운 문화 현상이 된 것이다.

1980년대만 해도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현철의 '봉선화 연정' 등 메가 히트곡이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90년대 서태지의 등장과 함께 젊은 세대가 대중음악 시장을 주도하면서 트로트는 침체했다. 주류 대중문화인 방송에서 거의 사라진 채, 고속도로 휴게소와 노래방, 칠순잔치, 유세 현장 등 언더그라운드에서 유흥문화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탄탄한 어르신 시청자를 보유한 종편채널 TV조선이 판세를 뒤집었다. 한국에 팬덤 문화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을 벤치마킹한 기획으로 잠자던 중장년 팬덤을 폭발시켰고, 특이하고 새로운 문화에 목마른 젊은 세대까지 유혹하고 나섰다. 지난해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송가인의 등장으로 붙은 불씨에, 종편 사상 최고 시청률(35.7%)을 기록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이 기름을 부었다. 파바로티 뺨치는 가창력의 성악가도, 한때 잘나가던 로커도, 현란한 댄스 실력의 아이돌도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 '진' 임영웅은 자동차·커피·정수기 광고 등을 휩쓸며 광고계 블루칩으로 등극했다.

2020년을 사로잡은 트로트

트로트의 부활은 음악 장르의 문제를 넘어선다. 〈미스터트롯〉 포맷에 숨겨진 전략은 효, 부부 금슬, 예의바름 같은 잊힌 미풍양속을 비롯해 칠전팔기, 남자다움, 굶주림의 애환 같은, 다소 쿨하지 못한 '꼰대' 문화 코드의 소환이다. 젊은 출연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고, 객석을 점령한 중장년층에게 구애의 꽃송이를 내밀며, 시청자를 향해 큰절을 올리는 낯선 풍경은 신구세대간 화합의 코드로 작용했다. 온 가족이 모여 〈미스터트롯〉을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34만을 기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각자 스마트폰을 쥐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을 TV 앞으로 끌어 모아 '트로트로 대동단결'했달까.

〈미스터트롯〉의 시청률과 문자 투표 수가 〈프로듀스101〉보다 월등히 높고, 중장년층이 '스밍(스트리밍)'에 열을 올리며 음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화 권력 대이동'으로 볼 수도 있다. 문화 향유와 거리가 멀었던 중장년층이 대중음악 시장의 중심에 있던 10~20대를 밀어내고 지갑을 열게 된 대상이 트로트라는 사실은 과도하게 현란해진 대중음악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아이돌 댄스곡과 힙합을 도배하는 외국어 등 따라잡기 힘든 가사와 춤이 아니라 쉬운 가사와 단순한 리듬, 반복적인 선율로 음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았던 트로트가 대세가 된 것이다.

TV조선이 〈미스터트롯〉의 후속작으로 내놓은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는 "트로트도 초기에는 대도시에서 신교육을 받은 10대 중산층이 즐기는 고상하고 복잡한 음악이었지만, 일본에서 들어온 비서구적인 것으로 폄훼되면서 하층민의 문화로 옮겨갔다"면서 "요즘 트로트는 욕망을 날것으로 털어놓는 희열과 해방감이라는 하층민 정서가 핵심이 됐다. 지금의 인기는 삶이 너무 힘드니 밑바닥 욕망을 드러내는 막장의 쾌감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준다'는 트로트의 기본 정서도 '이 풍진 세상'에 가수와 팬덤 사이를 끈끈하게 한다.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은 고운 화장과 반짝이 의상 뒤로 어딘지 고생이 묻어나는 'n포 세대'로서 각자 실패나 시련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었고, 절실한 각오로 임한 모든 무대가 독특한 비장미로 눈물과 감동을 생산했다.

새 옷을 입은 신파, '신화'로 거듭날까

사실 트로트는 원래 신파였다. 1920년대 '라시도미파' 단조 5음계에 2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엔카와 흡사한 형태로 탄생한 '정통 트로트'는 구슬픈 애상의 정서가 특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열풍의 비밀은 신파를 털어내고 젊은 감각으로 회춘시킨 콘텐츠 업그레이드에서 찾을 수 있다. 〈미스터트롯〉에서도 기존 형식과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창의적인 무대에 반응이 뜨거웠다. 폴 댄스·탭 댄스·태권 무예·마술까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원한 대반전 콘셉트로 새로운 쇼 문화의 가능성까지 점치게 하며 젊은 세대까지 열광시켰다.

결국 트로트를 매력적으로 포장한 건 미디어의 힘이다. 2011년 시작된 KBS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젊은 세대에 소구하는 댄스·발라드·EDM 등 타 장르와의 혼성 편곡,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트로트를 신선하게 재해석하는 흐름을 만든 것이다. 이후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유산슬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트로트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리스펙트' 되고 〈미스터트롯〉 같은 경연 방송을 통해 분석의 대상으로 격상했다. 〈미스터트롯〉의 후속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방방곡곡의 팬덤과 직접 전화 연결로 신청곡을 받는 진정한 '쌍방향 소통형' 방송 포맷을 개척해 생생한 리액션을 끌어낸 것이다.

끝없는 왜색 논란과 함께 대중음악사상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비하되어왔던 트로트의 열풍은 음악 시장이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데 대한 방증이다. 촌스럽고 올드한 것으로 여겨지던 트로트가 힙하고 트렌디한 '요즘 대세'로 포장되니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막소외 계층과 유흥문화 코드를 벗고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트로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소비되어갈지, 진짜 흥미진진한 건 지금부터다.

글 **유주현** 중앙SUNDAY 기자
중앙SUNDAY 공연 담당 기자.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 제공 **TV조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렘브란트에서 백남준까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예로부터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였다. 렘브란트, 반 고흐, 몬드리안 등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서 예술의 열정을 불태웠다. 또 도시 전체가 커다란 미술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곳곳엔 미술관들이 가득하다. 그중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국립 미술관과 스테델릭 미술관은 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지향형 미술관으로 재탄생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msterdam

©Rijksmuseum, John Lewis Marshall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 전경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17세기에는 해상 무역을 주도해 세계 무역과 상업, 예술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누렸다. 이를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부른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 프란츠 할스Frans Hals 등의 화가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면서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웠다. 특히 수도 암스테르담은 예로부터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로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서 살며 걸작을 남겼다. 암스테르담의 중심지는 중앙역과 왕궁이 있는 담 광장Damplein이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는 남부 '자위트Zuid-South' 지구에 있는 '뮤지엄 광장Museumplein'이다. 녹음이 우거진 뮤지엄 광장에는 국립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 스테델릭 미술관까지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3대 미술관이 모여 있어 1년 내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네덜란드의 보물, 국립 미술관

1885년 개관한 국립 미술관Rijks Museum은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현지에선 국립이란 뜻의 '레이크스Rijks'라 불린다. 네덜란드 건축가 피에르 쿠이페르스Pierre Cuypers가 설계한 미술관은 ㅁ자 구조의 붉은 벽돌 건물로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었다. 개관 이후 몇 번의 증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개조 공사의 결과물이다. 개관 후 125년간 네덜란드 최고의 미술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미술관은 지난 2000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 폐쇄를 결정한 뒤 한화 5,5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다. 리모델링 설계를 맡은 스페인 건축 회사 크루스 앤드 오르티스Cruz y Ortiz는 네오고딕 양식의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공간과 최신 시설을 추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장장 10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2013년 4월 13일, 19세기의 웅장하고 역사적인 건물은 21세기의 경쾌하고 개방된 박물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다시 관객을 맞이했다. 과감한 투자와 기다림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레이크스는 이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첨단 시설을 갖춘 미술관이자 네덜란드 보물의 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
뮤지엄 광장을 통해 새 미술관 입구로 들어서면 대형 아트리움이 관객을 맞이한다. 예전의 미술관 안뜰이 거대한 로비 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1

©이은화

©Rijksmuseum, Photo: Erik Smits

국립 미술관 내부.
기존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고딕 천장과 기둥은 그대로 살리면서
벽이나 바닥, 가구 등은 차분한 톤으로 마감했다

©Rijksmuseum, Photo: Erik Smits

2

©이은화

3

뮤지엄 광장을 통해 새 미술관 입구로 들어서면 밝고 화사한 대형 아트리움이 관객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 예전에 있던 미술관 안뜰이 이렇게 거대한 로비 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지상 3층까지 확 트인 공간이라 시야가 시원하다. 아트리움 한쪽 지하에는 아트숍이, 바로 그 위층에는 천장과 출입문이 따로 없는 개방형 카페가 새로 들어섰다. 또 아시아관과 드로잉 학교, 강당, 레스토랑, 도서관 등 교육이나 행사, 관람객 편의 시설들이 대폭 늘어났다.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교회 같은 미술관이 아니라 열린 광장처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끌벅적한 공공 미술관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미술관 내부는 이전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고딕 천장과 기둥은 그대로 살리면서 벽이나 바닥, 가구 등은 차분한 회색 톤으로 마감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지상층(0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80개의 전시실에선 12~20세기의 유물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소장품 8,000여 점이 800년의 네덜란드 역사와 예술을 보여준다. 그중 2층에 있는 30개 이상의 전시실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작품들을 위한 공간으로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프란스 할스의 〈기분 좋은 술꾼〉 등 세계적인 명작들을 만날 수 있다.

2, 3, 4
네덜란드의 보물이자 국립 미술관의 대표작인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2019년 여름부터 대규모 복원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갖 시련을 견뎌낸 〈야간 순찰〉

네덜란드의 보물로 불리는 〈야간 순찰〉은 국립 미술관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루브르의 〈모나리자〉처럼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립 미술관을 찾아온다. 지금은 북유럽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야간 순찰〉이지만, 사실 당대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온갖 수모의 주인공이었다. 그림은 암스테르담 시민 민병대 중 하나인 클로베니르 부대원들의 집단 초상화로 대장의 지휘하에 부대원들이 출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가운데의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프란스 반닝 코크 대장이고, 밝은 황금빛 제복을 입은 남자가 라위턴뷔르흐 부대장이다. 원래는 주문자의 이름을 딴 '프란스 반닝 코크 대장 지휘하의 밀리티아 제2지구 회사'라는 긴 제목으로 불렸으며 〈야경〉 또는 〈야간 순찰〉이란 제목은 18세기에 붙은 것으로, 그림 위에 칠한 검게 변한 니스 때문에 밤 장면을 그린 것으로 오인한 데서 기인했다. 1940년, 약 300년 동안 그림을 덮고 있던 오랜 먼지와 광택제를 벗겨내자 밤이 아닌 한낮의 햇빛 아래서 진군하는 부대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낮의 장면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야간 순찰〉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극적인 빛의 연출과 역동적인 인물들의 움직임, 강렬한 상징성으로 채워진 화면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이렇게 렘브란트는 인물들을 나열해 그리는 단체 초상화의 규범을 과감히 깨버리고, 역사에 남을 독창적인 명작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시대를 앞선 그의 그림은 당대의 비웃음거리가 됐고 의뢰인들에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돈을 낸 18명의 주문자 외에도 16명의 인물을 더 그려 넣었기 때문에 주문자들의 불만이 엄청났다. 당시 렘브란트는 화가로서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만 이 그림 이후 초상화 주문이 끊기면서 나중엔 개인 파산과 생활고도 겪게 됐다.

〈야간 순찰〉은 당대에 인정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물리적 훼손까지 당했다. 1715년에 그림을 암스테르담 시청에 설치하면서 그림보다 작은 벽에 끼워 맞추다 보니 그림 일부를 잘라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맨 왼쪽에 있던 병사 두 명의 초상도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885년 국립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현재의 전시실로 옮겨온 이후에도 몇 차례 반달리즘vandalism으로 훼손되었다가 어렵게 복원됐다.

탄생부터 온갖 시련과 모욕을 견뎌낸 〈야간 순찰〉은 2019년 여름부터 대규모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색이 점점 희미해지고 변색도 심해져 일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1975년 있었던 마지막 복원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정밀 진단을 받고 대수술에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 수년의 시간, 수백만 유로가 소요될 이번 복원 작업은 투명한 특수 유리 전시실 안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 관람객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복원 과정을 공개했는데, 타고 디비츠 관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놀랄 만큼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복원 중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모두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복원 작업으로 지난 370여 년간 몰랐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둘러싼 새로운 비밀이 또다시 밝혀질 것인지 전 세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Rijksmuseum, Amsterdam. On loan from the City of Amsterdam

4

©Stedelijk Museum Amsterdam, Photo: John Lewis Marshall

5

©Gert Jan van Rooij

6

©Ernst van Deursen

7

혁신 미술과 미디어 아트의 전당, 스테델릭 미술관

국립 미술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스테델릭 미술관은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현대미술의 보고다. '스테델릭Stedelijk'은 '시(City, Urban, Municipal)'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한다(2006년부터는 시에서 독립해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기관이 되었다). 이웃한 반 고흐 미술관이나 국립 미술관이 관광객들의 인기 명소라면 스테델릭 미술관은 암스테르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휴식처다. 뛰어난 소장품 목록과 혁신적인 전시로 일찌감치 유럽에서 주목받는 현대미술관이 되었지만 한때 방만한 운영과 소장품 과잉 구매에 따른 세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스테델릭 미술관의 개관은 1895년이지만 그 역사는 18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스테르담 시 당국과 뜻있는 개인들이 주도해 처음으로 시립 미술관을 설립했는데, 당시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들은 새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네덜란드 국립 미술관에 보관됐다. 개관 초기에는 미술관 건축비를 후원하고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한 수아소 부인의 이름을 따 수아소Suasso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붉은 벽돌 건물은 네덜란드 건축가 빌렘 바이스만Adriaan Willem Weissman의 디자인이다. 국립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보수와 개조 공사를 진행했고, 8년의 긴 작업 끝에 2012년 9월 23일 뉴 스테델릭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입구로 사용되는 건물은 2012년 개관한 신관으로 하얀 욕조를 닮아 '욕조Bathtub'라고 불린다. 통유리로 마감한 1층 위에 하얀 욕조가 떠 있는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이라 멀리서도 눈에 띈다. 지금은 암스테르담의 건축 명물이자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완공 당시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비난을 받았다. 벤뎀 크로우웰Benthem Crouwel Architects의 설계로 진행된 증축 공사에는 1억2700만 유로(약 1700억 원)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어, 전시장 내부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넓어졌고, 공간뿐 아니라 관람객 수도 두 배로 늘었다. 연간 20~30만 명이 찾던 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70만 명(2018년 기준) 이상이 찾는,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미술관이 됐다.

5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현대미술의 보고, 스테델릭 미술관. 좌측이 1895년의 오리지널 건물, 우측이 2012년 새롭게 리모델링한 신관이다. 마치 하얀 욕조가 떠 있는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이다

6
스테델릭 미술관 전시실 내부

7
국립 미술관 광장에서 바라본 스테델릭 미술관

© Stedelijk Museum Amsterdam, Photo: Peter Tijhuis

8

STEDELIJK MUSEUM

이트 시티를 가다 ART CURATOR

증축 공사 덕분에 미술관은 넓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유기적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대형 전시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밝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아트숍과 레스토랑, 도서관, 강당 등 관객 편의 시설과 부대 시설도 대폭 늘려 진정한 21세기형 미술관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강렬한 그래픽 작업으로 장식된 복도 공간도 인상적인데, 지하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전시장에선 반 고흐, 몬드리안, 세잔, 샤갈, 윌렘 데 쿠닝, 바넷 뉴먼, 데이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 등 19세기 말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현대미술과 디자인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개관 초기 미술 작품뿐 아니라 시민 민병대의 현수막까지 잡다하게 수집했던 미술관이 이렇게 근현대 미술의 보고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역대 관장들의 공이 컸다. 특히 미술관이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건 큐레이터이자 디자이너였던 빌렘 샌드버그Willem Sandberg가 관장이 된 1945년부터였다. 1937년부터 이곳 큐레이터로 재직한 그는 소장품의 양적·질적 확장뿐 아니라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야심차고 혁신적인 전시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해 미술관을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현대미술 기관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20년경부터 근현대 미술과 디자인,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집했던 스테델릭 미술관은 1970년대부터는 유럽 예술가들의 비디오 아트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1977년 백남준의 개인전을 연데 이어 이듬해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V부처〉1974를 소장품으로 사들였다. 유럽의 공공 미술관이 비디오 아트의 가치를 알아보고 백남준의 작품을 구입한 첫 사례였다. 현재 이곳 비디오 아트 컬렉션에는 백남준의 작품 4점을 비롯해 빌 비올라, 브루스 나우만의 작품 등 총 900여 점의 작품과 설치물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개막을 미루고 있긴 하지만 백남준 사후 최대 규모의 회고전 〈미래는 지금이다The Future is Now〉도 세팅을 완료하고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열려 호평을 받은 전시의 순회전으로, 네덜란드에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과 그의 앞선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과 기술, 대중과 예술, 지역과 세계,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추구한 백남준 예술의 혁신성과 미래지향성은 스테델릭이 추구하는 이상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8
백남준 회고전
〈The Future is Now〉
전경

글 이은화 미술 평론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그랜드 아트 투어』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Inside Seongnam

68
성남 속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

71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성남문화재단
소식

62
성남, 성남人
지승공예가
홍연화

66
독립예술영화관
〈살아남은 아이〉

은행동 민속공예전시관에서 만난 홍연화 명인

지승공예가 홍연화

성남 1호 공예명장의 영예와 꿈

길게 자른 한지를 새끼줄 꼬듯 촘촘히 꼬아 끈을 만든다.
양끝을 툭툭 잡아당겨도 제법 팽팽하다.
다시 겹줄로 꼬아 뜨개질하듯 엮으면
온갖 용품부터 장식품까지 못 만들 게 없다.
지승공예는 버려지는 종이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썼던
선조들의 생활 속 지혜에서 출발한 전통 공예이다.
30년 넘게 지승공예의 맥을 이어오며
성남시 1호 공예명장으로 지정된 홍연화 명인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전통을 계속 지켜가고 싶다고 했다.

지리산 화엄사, 천년고찰의 멋과 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사람들이 특별한 전시를 만나고 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의 기획초대전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이다. 달항아리와 술병, 반짇고리, 다기 세트 같은 전통 용품이 유독 색다르게 보이는 건 재료와 기법 때문이다. 나무나 흙처럼 비교적 익숙한 재료가 아니라 종이를 사용해 만든 공예품 전시회는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종이끈으로 엮은 조직의 치밀함과 유려하고도 견고한 만듦새가 놀랍다. 이렇게 촘촘히 엮어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1, 2, 3 지승공예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르다. 종이로 만든 물건에 옻칠을 하면 방수성과 방부성이 생겨 망가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홍연화 명인은 선조들의 멋스러움과 지혜를 오래도록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이 홍연화 명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시 계획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홍연화 명인과 함께 활동하는 경록지승보존연구회의 회원들은 전시 구성부터 도록을 만드는 일까지 하나하나 머리를 맞댔다.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맞게 특별히 준비한 작품들도 있다. 승려의 식기인 발우는 홍연화 명인의 야심작이다. 흰 종이로 만든 '15함 발우'는 색이나 문양의 화려함이 없기에 형태의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진다. 종이의 독특한 질감과 단아한 아름다움이 한참을 들여다봐도 질리지 않는다. 지승공예의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알 것 같다.

흰 종이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색지를 사용할 때보다 신경 쓸 일이 많다. 작업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도 수시로 씻는다. 지승공예의 아름다움은 만드는 이의 정성과 시간이 빚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관복함은 완성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평생 수많은 작업을 해온 명인에게도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한지를 일일이 자르고 꼬아 공예 재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다. 홍연화 명인은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지승공예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무상무념의 세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오직 작품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경험이 지승공예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도 통한 지승공예의 멋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은 나전칠기, 한지, 금속 등의 각종 공예품 전시장을 갖춘 시설이다. 홍연화 명인은 2016년 성남시 1호 공예명장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입주했다. 2층에 위치한 명인의 작업 공간은 고운 색으로 물들인 한지들, 전통 가구와 소품들, 그간 작업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개인상을 받은 지승 도자기 스탠드를 비롯해 현대적인 소품들도 보인다. 어떤 색, 형태, 문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내는 게 지승공예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다. 옷이나 클러치 같은 패션용품은 젊은 세대도 충분히 좋아할 세련된 감각이 돋보인다. 당장 사용해도 될 만큼 실용성도 뛰어나다.

지승공예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르이다. 물건이 흔한 요즘은 온전히 예술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 시작은 실생활에 사용할 물건을 만드는 선조들의 일상이었다. 종이로 만든 물건에 옻칠을 하면 방수성과 방부성이 생겨 물기가 닿아도 망가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홍연화 명인은 지승공예를 연구할수록 선조들의 멋스러움과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고 했다.

"옛날에는 가마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먼 길을 가는 신부를 위해 가마 안에 넣어주던 건데, 놋쇠나 도자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요."

해외 전시에 참가할 때면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외국인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실감한다. 홍연화 명인은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국 전통공예 전시회 〈법고창신전〉에 참가해 지승공예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을 다수 만났다. 한영재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영국 빅토리아앤드앨버트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에도 종이로 만든 장식품을 신기해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경험했다.

"지승공예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어요. 지승공예와 유사한 작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현재 지승공예의 맥을 잇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작품, 이름, 사람을 남기는 일

지승공예가 지금처럼 명맥을 유지해오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공예가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홍연화 명인도 본격적으로 공예를 배워본 적이 없다. 어렸을 적 부친이 종이로 소품을 만드는 모습을 본 것이 전부였다. 회사 생활로 지친 마음을 달래려 시작한 취미에 점점 빠져들고 한지공방을 차린 게 1986년이었다. 작은 공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더 마음에 들게 완성되는 작품을 보는 즐거움에 홀로 걸어온 길이었다.

2005년 한지공예 부문 경기으뜸이, 2013년 한국예총 명인, 2016년 성남 1호 공예명장 등 공예가로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홍연화 명인은 지승공예를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야 손에 물이 오른 것 같다고 느낀다.

"예술가들이 왕성하게 작품을 만드는 시기, 명작들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지금이 그렇다고 하면 오만한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남은 고민은 지승공예의 명맥을 이어갈 기반을 닦는 일이다. 5년 전 제자들과 함께 만든 경록지승보존연구회가 그 토대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전시회나 일일 체험교실처럼 대중과 만날 기회도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물오른 손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오래 기억될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남기고 싶은 것도 전통을 지키는 예술인에게는 당연한 욕심이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살아남은 아이〉감독 신동석, 2017

사건 이후의 시간을 대하는 미더운 태도

누군가의 공백(죽음)으로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다. 인물들은 그 공백과 관련한 사건에 접근하며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살아남은 아이〉는 진실에 대해 시원한 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다. 오히려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더 거대한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이 영화의 미덕은 바로 그 지점, 부재의 기억을 강렬하게 환기하며 삶의 모호성을 들여다보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나는 아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특히나 그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연루돼 있을 때, 죽음은 일상의 시간을 거대한 공백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 현실의 반영과 재현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화가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의 시간을 다룰 때 무엇이 영화의 윤리이며 윤리의 영화가 되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18년 8월에 개봉한 신동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 〈살아남은 아이〉2017는 이 난망한 물음 앞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분투하며 끝내 자기만의 결말에 이른다. 우연의 일치일까, 2018년 〈살아남은 아이〉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이름 모를 시민군을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 〈김군〉감독 강상우, 2018과 함께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꼽은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됐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전혀 다른 문법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시간, 존재, 그 사건의 정황을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주목할 만한 영화가 유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살아남은 아이〉가 주목하는 사건과 그 사건을 전하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8개월 전, 미숙(김여진)과 성철(최무성)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다윗)을 잃었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던 은찬이 물에 빠진 친구 기현(성유빈)을 구하려다 그만 변을 당한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기현은 학교에 잘 나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 같다. 마땅히 돌봐줄 부모도 없어 보인다. 성철은 그런 기현에게 자신이 하는 도배 일이라도 배우라 하고 도배기능사 자격시험 준비차 교재까지 사준다. 한편 미숙은 아들을 죽게 한 기현을 곁에 두는 성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미숙에게 성철은 "은찬이가 구해준 애"인 만큼 "밥벌이라도 할 정도만 되면 내보내겠다"고 한다. 미숙도 성철도 마음이 복잡한 건 마찬가지다. 아들 대신 살아남은 아이 앞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기현이 한없이 밉지만 '아들이 살려준 아이'라는 점 때문에 마음 놓고 미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조금씩 기현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그렇게 영화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무렵, 〈살아남은 아이〉는 거대한 반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영화에서 사실 혹은 진실이라고 했던 것들이 일순간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은찬이 죽게 된 물놀이 현장의 전말이 실은 여태껏 우리가 알았던 것과 다르

며 기현을 포함한 또래 아이들의 모의 정황이 있었다는 게 점점 드러난다. 은찬이 기현을 구한 게 아닐 수 있다면, '살아남은 아이' 기현은 가짜였고 그런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란 말인가. 미숙과 성철은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을 탐문하지만, 부부 그리고 우리는 끝끝내 은찬의 죽음의 정확한 이유와 상황을 알지 못할 것이다. 다만 경찰은 '그날' 현장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오직 기현만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그렇다 해도 기현의 말의 진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해올 뿐이다. 기현이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일까, 그런데도 왜 그 말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일까. 은찬은 죽었는데 왜 은찬이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 수 없다니. 삶과 죽음은 이렇게나 미스터리하고 알 길이 없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진실의 범주, 개념, 의미라는 게 빈껍데기에 불과해 보이는 바로 그때, 도리어 〈살아남은 아이〉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더니 끝을 향해 달려간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기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부부는 그런 기현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현현하는 '살아남은 아이'의 실체를 목격할 것이다. 동시에 아이를 살린 이 부부의 눈물겨운 운명과 용단에 숨이 턱 막힐 것이다.

공백은 여전하고 용서는 쉽지 않지만

〈살아남은 아이〉는 '살아남은 아이'를 둘러싼 겹겹의 의미와 질문을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져간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죽음이라는 사건이 만든 거대한 공백을 대면하는 이 영화의 믿을 만한 태도라 하겠다. 공백은 영화가 끝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공백은 공백인 채로 있을 뿐, 어쩌면 영화가 진척될수록 공백은 더 깊고 넓어졌을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이라는 사건을 대하는 이 영화의 신중하고 유의미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살아남은 아이〉를 두고 '용서와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의 영화라는 일련의 설명과 해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살아남은 아이〉는 용서와 치유를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에 가까울 테니까. 용서와 치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대한 부재 앞에서 영화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실의 실체가 얼마나 모호한지, 이 카오스의 심연에서도 만약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할 뿐이다. 〈살아남은 아이〉는 부재의 흔적을 강렬하게 환기하며 삶의 모호성을 들여다보는 영화의 한 예로 더 많이 이야기돼야 한다. 신동석 감독의 탄탄한 각본과 뚝심 있는 연출, 제28회 부일영화상 신인 남자연기상과 제39회 황금촬영상 신인남우상을 받은 배우 성유빈의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글 **정지혜** 영화평론가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영화 웹진 〈REVERSE〉 필진. 『너와 극장에서』(공저, 2018), 『아가씨 아카입』(공저 및 책임 기획, 2017), 『독립영화 나의 스타』(공저, 2016) 등에 참여했다.

〈살아남은 아이〉는 성남문화재단이 2017년 제작지원한 작품입니다. '독립예술영화관'에서는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이 함께한 독립영화를 소개합니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

위기를 넘어, 함께 도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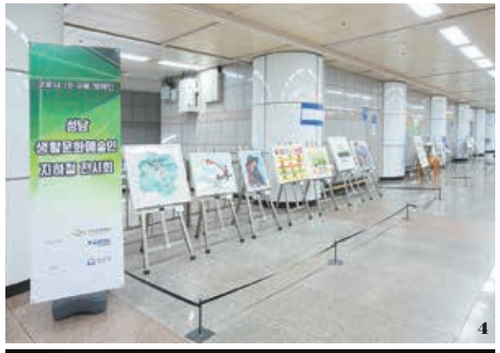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의 휴관이 장기화되는 현재, 관객을 만날 기회를 잃은 대다수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들은 몇 달째 '일터'가 사라진 상실감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성남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곳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이어지는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를 응원하기 위해 나섰다.

성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민 생활예술의 본산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우선 〈2020 생활문화동호회한마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문화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성남의 생활문화예술을 꽃피워 온 시민 생활문화예술동호인과 단체들, 시민을 위한 지원 기회를 마련했다. 코로나19 극복 의지와 방역·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는 퍼포먼스 동영상(총 3개, 지원금 각 100만 원), SNS 동영상(총 6개, 지원금 각 50만 원), 전시작품(총 30점, 지원금 각 50만 원) 3개 부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극복과 응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시민과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린 구성'으로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퍼포먼스 동영상 공모는 2분 내외 분량의 퍼포먼스 소개·대본·큐시트·음원 파일을 제출하면 재단이 섭외한 촬영 전문가가 선정작의 동영상을 공동 제작하는 절차로 진행했고, SNS 동영상 공모는 응원 음원과 율동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제출하는 형식으로 부담을 줄였다. 전시작품 역시 30호 이하 자유 규격으로 회화·조각·공예 등 장르를 국한하지 않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결과 많은 응모작들이 참신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라는 공모 의의를

1, 2 성남캘리그라피협회 회원들의 재능나눔으로 완성된 의료진 응원 에코백
3 성남시의료원 로비에 장식된 시민들의 응원 메세지와 에코백
4 지하철 분당선 역사 내에서 전시 중인 #힘내라_성남 순회전시
5 성남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영상

2

3



4

5

멋지게 담아낸 선정작들은 SNS와 성남시 곳곳의 버스정류장, 전광판에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전시 부문 선정작 30점은 지하철 분당선 죽전 관리역과 수서 관리역의 협조로 지하철 분당선(오리역~복정역) 주요 역사에서 순회 전시가 진행 중이다. 15점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힘내라_성남 순회전시는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분당선 역사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다음으로 진행된 〈2020년 성남문화예술단체 지원 공모〉 역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문화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현재 성남시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 송 제작 및 온라인 활동(코로나19극복 캠페인 지원 부문),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예술활동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활동(단체활동 지원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예술로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는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공정한 평가를 거친 결과, 아쉽게도 캠페인 지원 부문은 선정 단체를 선발하지 못했으나, 단체활동 지원 부문은 사랑나눔문화예술단과 분당사랑 A&C 2개 단체가 조건부 승인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진 덕분에': 성남시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남시 의료진을 위한 응원도 준비했다. 의료진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에코백을 제작, 성남시의료원에 전달한 것이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직원과 성남시 생활문화동호회원,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했고, 이렇게 모인 메시지는 성남캘리그라피협회 회원들의 재능나눔으로 한 땀 한 땀 에코백을 장식했다. 에코백 재료는 지난해 재단이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진행용으로 구매했던 테이블보를 활용, 자원 절약과 리사이클링의 의미까지 담았다. 시민들이 에코백을 위해 손글씨로 적은 응원 메시지 카드 역시 지난달부터 성남시의료원 로비에 전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는 중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언제일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순간, 지쳐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격려, 잠시의 휴식일 것이다. 문화예술로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성남문화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한 지금, 지역과 시민을 위한 재단의 고민은 다양한 실천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 사진 **최재우**

SNCF NEWS

성남문화재단,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 10만 뷰 돌파

네이버TV에서 진행된 성남문화재단의 마티네 콘서트(5월 21일), 연극만원滿員 〈B클래스〉(5월 23일) 온라인 생중계가 총 재생 횟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단의 대표 브랜드 시리즈인 마티네 콘서트, 연극만원 시리즈를 각각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과 앙상블시어터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 네이버TV와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과 진행자 김석훈

마티네 콘서트 네이버TV 생중계 현장

5월 21일(목)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마티네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는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지휘자 최수열,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빈 객석을 가득 채우는 완벽한 하모니로 생생한 감동을 전했다. 올해 15번째 시즌을 맞이한 대표 브랜드 공연인 만큼, 기존 마티네 콘서트 관객은 물론 평일 오전 시간대에 명품 클래식 공연을 온라인 무료 공연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호응을 얻어 재생 횟수 1만3천여 회를 기록했다.

5월 23일(토) 오후 5시, 연극만원 시리즈로 진행된 연극 〈B클래스〉(작·연출 오인하)는 재생 횟수 9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랜선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배우 이이림, 박은석, 조원석, 최문석, 오세미가 출연해 마치 객석 1열에서 관람하는 듯한 열정 넘치는 연기였다는 평을 받았다. 성남문화재단의 온라인 생중계 공연은 오는 6월 20일(토) 연극만원 〈열여덟 어른〉(원작 박도령, 각색·연출 유나영)까지 계속된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영상 조회 수와 실시간 댓글을 통해 관객들이 얼마나 공연을 기다려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현재, 관객들이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장을 재개관하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EONGNAM ART BANK
SNAB
성남미술은행

성남미술은행(SNAB)은 저렴한 가격에 미술작품을
대여, 감상 할 수 있는 아트 쉐어링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snab.or.kr

작품대여문의 031 783 8000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CFM
성남큐브미술관
SEONGNAM CUBE ART MUSEUM

SNCF NEWS

202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선정작 발표

성남문화재단이 '202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지원작으로 김현탁 감독의 〈아이〉, 박정범 감독의 〈The Boxer 김예준〉, 백시원 감독의 〈젖꼭지 3차 대전〉, 김송희 감독의 〈모서리〉 등 총 4개 작품을 선정했다.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은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 7년째를 맞는 지원사업으로, 국내 독립영화 발전과 신인 감독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국내외 영화제에서 47관왕의 업적을 기록한 2016년 지원작 〈벌새〉(감독 김보라)를 비롯해, 2018년 지원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감독 김초희) 등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진행, 총 178편이 접수된 가운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장단편 각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장편 부문에 선정된 김현탁 감독의 〈아이〉는 고아 출신 베이비시터와 미혼모를 통해 결핍이 있는 두 여성의 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장르적 확장성과 작품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평을 받아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역시 장편 부문 선정작으로 6000만 원을 지원받는 박정범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The Boxer 김예준〉은 한때 한국 최고 유망주이자 세계 챔피언 출신의 복싱 선수 김예준의 좌절과 도전을 통해 승리에 집착하는 인물의 삶을 정면으로 고찰하는 시선이 돋보인다.

단편 부문에 선정된 〈젖꼭지 3차 대전〉(감독 백시원)은 여성의 신체를 향한 불평등한 시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으로, 시의적인 주제를 매력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유아기의 성적인 자각을 다룬 〈모서리〉(감독 김송희)는 정갈한 심리묘사, 주제의 무게감을 완화하는 밝고 경쾌한 시선으로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그간 지원작들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공모 작품의 증가는 물론 주제와 형식면에서도 다양해졌다"며 "선정작 모두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새로운 시선과 형식이 돋보이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와 작품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 현장.
제작지원작인 〈니나내나〉 이동은 감독과 이은 명필름 대표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SNCF NEWS

(왼쪽부터) 박민호 자문위원, 조영호 자문위원,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유남근 자문위원

성남문화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성남문화재단이 전문가와 재단 직원의 소통을 통한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시에 안정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그 첫 단계로 재단의 주요 사업을 함께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문화재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무자와 함께 적극 호흡하고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참여를 이끄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정기회의 참석이나 단순한 조언에 그치는 기존의 형식적인 자문위원회의의 틀을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시설건립, 창의인성교육, 미술관운영, 미디어센터운영 등 4개 분야의 자문위원을 지난 4월 24일(금) 위촉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등을 담당할 문화시설건립 자문위원으로는 경희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유남근 전前 천안문화재단 관장이 위촉됐다.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체계를 담당할 창의인성교육 분야는 충무아트홀 사장과 전통문화재단 사장을 역임한 박민호 서울시교육청 전통문화재단 영재교육원장이 맡았으며, 영화감독이자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조영호 네오무비 대표이사가 미디어센터 운영 체계 정립 및 사업의 다각화와 고도화에 힘을 보탠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내외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연과 서비스는 물론 전산 분야 등 재단 운영 전 분야로 자문위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시설 방역 및 안전 관리 지속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관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과 미술관 등 전 시설에 대한 휴관 조치 중이다. 다만 재개관 시 언제라도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로 시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단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정기 방역과 보건위생 관리, 열감지 카메라 비치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순차적 재개관 시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운영 지침을 준수, 시설 내 철저한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관람 및 운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를 나눠요
'세상의 모든 예술을 만나는 곳'
성남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갑니다
@seongnam_artscenter
www.youtube.com/user/snartscenter
blog.naver.com/snartc
twitter.com/snartscenter
www.facebook.com/seongnamart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SNCF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소식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2020년도 정기총회를 5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김진환 후원회장과 후원회 임원, 회원 중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2019년도에 대한 결산 보고 및 2020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었다.

김진환 후원회장,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 수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회장 조대연)가 지난 5월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진환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했다. 김진환 회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 검사장, 대한공증인 협회장 겸 아시아 회장, 한국포렌식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서울법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강정완 후원회원,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문화예술 부문 수상

후원회 자문위원 강정완 화백이 〈뉴스메이커〉 선정 '2020 특별기획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강정완 화백은 국전 대통령상, 파리 위마니테르드 프랑스 대상전 은상,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한국 미술계의 거목이다. 프랑스 화단에서 '한국의 샤갈' '시적 영감을 지닌 위대한 색채의 마술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강정완 화백은 1978년 몬테카를로 국제 현대미술대상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랑프리인 레니에 3세상을 수상하며 국내 미술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프랑스문화성에서 개인 아틀리에를 영구 제공받았고, 파리를 본거지로 활약을 펼쳐왔다. 현재 성남과 파리를 오가며 활동 중인 그는 성남아트센터에 〈한민족의 얼〉 등 3점의 대작을 기증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헌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송 자/탁순희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前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岩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이종덕/김영주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일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삼성전자 상무 / LF패션 전무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까치회원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장미영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김진환 부회장 강효주, 박지향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4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